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4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11.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131명 추가 확진으로 총 7,513명, 서울시 오늘만 35명 추가 확진, 총 191명

■ 전세계 일 사망자 4천명이 넘어...이탈리아발 코로나19 유럽전지역 확산

■ 구로구 콜센터 확진자 64명, 해당 층 전직원 진단 검사, 추가 환자 발생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 정부,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 격리·치료비 등에 예비비 투입

■ 박원순 시장,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건의

■ 서울시,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본격화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⁴⁾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¹⁾	191	0	35	33,532	3,634	29,898	4,782	1,460	3,322
전국 ²⁾	7,513	54	247	202,631	18,452	184,179	-	-	-
전세계 ³⁾	114,423	4,029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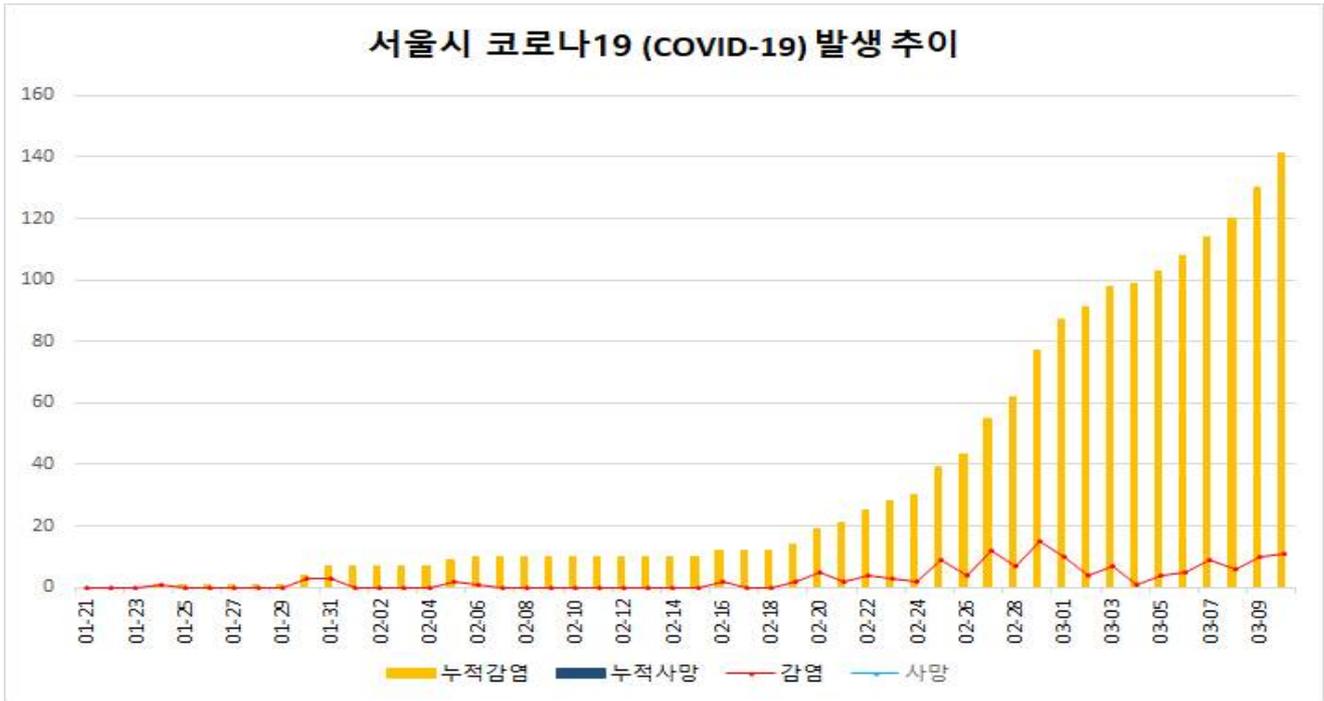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10. 0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3.10. 0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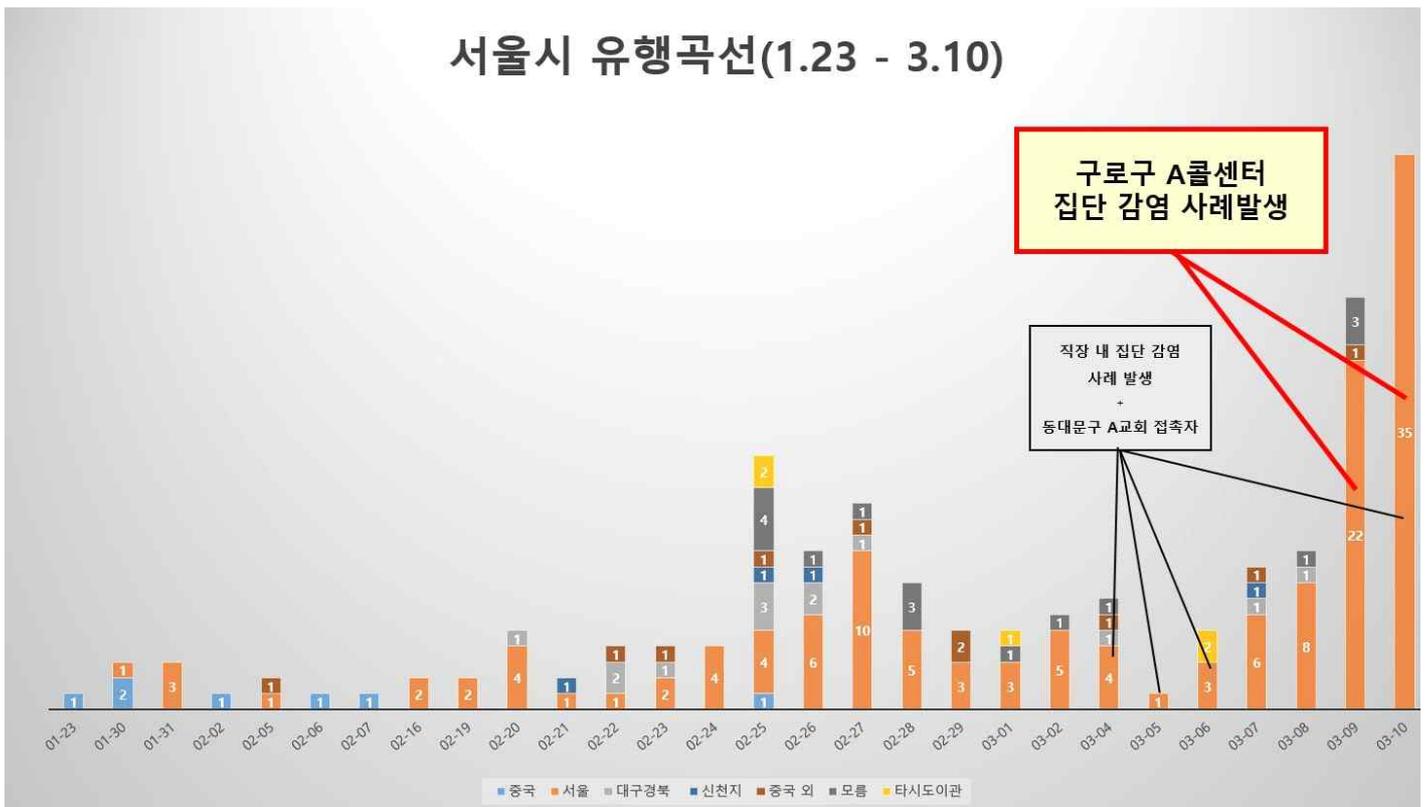
3) 전 세계의 경우, '위키피디아' '20.03.10. 16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자 35명 추가 환자 발생, 총 191명 보고됨
 - 입원환자 154명, 격리해제 37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141명(미발표 50명)
 - 국내 사망자는 51명으로 치명률은 0.71%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사망자 없음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10.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일 기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곡선

● 서울시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계	구로구 콜센터 관련	동안교회 관련	직장 내 단체감염	확진자의 접촉자
35	28	4	1	2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집단감염 발생 : 총 64 양성 확인(*타시도 확진자 포함)

- 3.8. 최초 양성 확진자 1명 보고
- 3.9. 총 21명: 서울시 18명(가족 3명 포함), 경기도 3명
- 3.10. 총 41명: 서울시 28명, 인천 13명, 타시도 확인중
- 근접 근무자 207명 자가격리 및 검사시행 중
- 전체 직원대상 검사(3.10. 600건) 시행 중으로 결과 보고 대기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127451017>

정00	이00		김00		박00		김00		조00		김00		공00		김00		김00									
공석	유00	공석	한00	김00	김00	김00	공석	나00	신00	공석	유00	장00	이00	조00	김00	박00	이00	공석	공석	오00						
이00	김00	안00	공석	공석	공석	공석	구00	최00	이00	이00	고00	김00	민00	공석	공석	장00		정00	이00	이00						
이00	실00	김00	홍00	박00	하00	이00	신00	박00	공석	이00	정00	이00	김00	김00	임00	손00	한00	박00	강00	김00						
백00	김00	강00	지00	공석	구00	이00	공석	강00	공석	공00	장00	강00	황00	백00	공석	이00	문00	공석	공석	문00						
공석	공석	황00	공석	윤00	이00	김00	김00	박00	공석	강00	이00	정00	김00		표00	염00	이00	염00	전00	김00						
공석	임00	실00	지00	황00	공석	김00	이00	김00	공석	공석	이00	공석	강00	김00	한00	공석	김00	노00	박00	공석						
정00	박00	박00	고00	공석	공석	공석	공석																			
정00	임00	김00	안00	공석	황00	김00																				
장00	정00	문00	전00	이00	정00	백00																				
이00	조00	김00	정00	공석	염00	정00																				
김00	김00	박00	김00	공석	박00	권00																				
공석	이00		양00			김00																				
															정00		김00		박00		공석		공석		캡스	

■ 최초증상발현자 ■ 3.9 양성확인자 ■ 3.10 양성확인자

구로구 콜센터 사무실 배치도 중 양성 확인 현황 (2020.03.10. 18:0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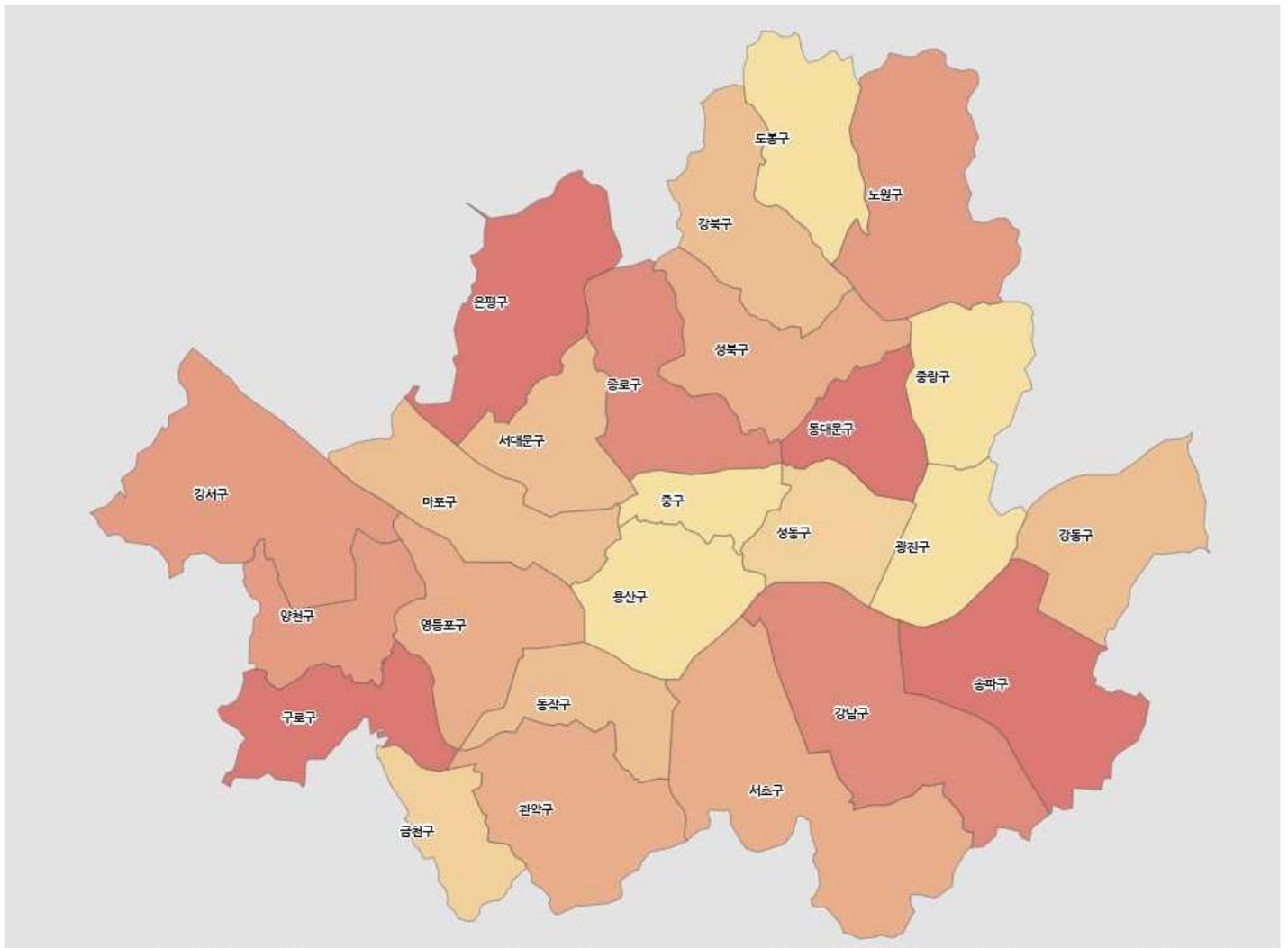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191명 (송파13, 강남12, 종로11, 노원10, 은평14, 성북6, 서초6, 관악9, 양천10, 강동5, 서대문4, 영등포9, 동대문16, 강북4, 성동3, 강서10, 중랑2, 광진2, 동작5, 도봉1, 용산1, 마포5, 구로13, 금천3, 중구1, 기타17(타시도 이관))
- 총 25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송파	은평	강남	동대문	종로	노원	구로	양천	성북	서초	강서	관악	강동	서대문	영등포	강북	성동	중랑	금천	광진	동작	도봉	용산	마포	중구	기타	계
누계	13	14	12	16	11	10	13	10	6	6	10	9	5	4	9	4	3	2	3	2	5	1	1	5	1	17	191
일계	1	2	-	4	-	-	4	3	-	-	4	4	-	-	5	-	-	-	1	-	3	-	-	4	-	-	35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0. 10: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83	44	34 ¹⁾	6	4	39	5	6	7	21

1) (3.9일자) 강동구, 영등포구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 (각 1개소씩 총 2개소)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10. 10: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상담소 5개소> 중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합 계	보건소 내	보건소 외	
35	34 ¹⁾	1	

1) 성북, 금천, 노원, 은평, 중랑, 강북, 서초, 영등포, 강동구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9개구 총 18개소)

그 외 자치구는 1개소 운영 (16개구 총 16개소)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0. 10: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X-ray	
	계	누계	계	누계	계	누계
3.8(일)	864	36,029	583	19,667	11	950
3.7(토)	871	35,090	612	19,086	2	941
증감현황	Δ7	-	Δ29	-	9	-

※ 누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일 18:00 보고 이후의 건수가 익일 누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임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간 운영 현황 - 진료

구 분	일별 진료 건수						
	3.1.	3.2.	3.3.	3.4.	3.5.	3.6.	3.7.
계	1,309	2,211	1,414	1,278	1,153	977	871
평 균	52.4	88.4	56.6	51.1	46.1	39.1	34.8
종로구	14	66	21	26	23	23	11
중 구	10	40	30	8	20	18	12
용산구	27	68	47	32	40	29	14
성동구	30	74	39	32	33	27	16
광진구	68	98	65	65	61	28	31
동대문구	61	67	30	54	54	72	50
종랑구	14	184	104	65	76	58	27
성북구	39	39	27	24	29	47	27
강북구	150	45	31	31	31	31	14
도봉구	146	146	64	53	54	42	24
노원구	7	30	33	13	13	13	3
은평구	56	136	87	62	47	68	45
서대문구	46	81	47	75	27	30	33
마포구	33	101	61	42	49	34	19
양천구	27	36	34	28	18	17	28
강서구	29	75	40	25	34	47	46
구로구	52	147	75	99	48	25	53
금천구	44	76	56	47	46	54	25
영등포구	24	13	39	45	32	18	67
동작구	71	114	78	81	86	44	30
관악구	60	101	114	51	55	47	145
서초구	93	202	95	91	61	42	49
강남구	120	148	120	132	112	82	43
송파구	50	63	49	39	34	33	32
강동구	38	61	28	58	70	48	27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주간 운영 현황 - 검체 검사

구 분	일별 검체 검사 건수						
	3.1.	3.2.	3.3.	3.4.	3.5.	3.6.	3.7.
계	807	1,464	998	821	792	670	612
평 균	32.3	58.6	39.9	32.8	31.7	26.8	24.5
종로구	14	76	21	26	23	23	10
중 구	7	9	13	5	7	8	6
용산구	27	66	42	25	38	28	12
성동구	22	27	15	13	10	10	7
광진구	36	36	33	33	28	16	10
동대문구	37	39	15	34	34	54	50
종랑구	13	184	104	65	75	57	27
성북구	17	30	13	19	17	22	10
강북구	19	20	15	15	15	15	14
도봉구	24	24	15	8	19	8	10
노원구	7	30	33	13	13	13	3
은평구	52	116	79	50	39	59	44
서대문구	25	37	21	38	20	18	14
마포구	26	40	44	25	20	32	14
양천구	7	8	24	11	6	10	22
강서구	28	74	40	23	33	47	46
구로구	47	131	75	93	47	23	52
금천구	36	45	40	40	40	24	9
영등포구	23	13	34	23	27	18	26
동작구	38	24	16	16	18	15	8
관악구	54	78	61	27	23	26	30
서초구	66	121	71	57	54	39	38
강남구	107	129	120	81	97	47	100
송파구	45	59	45	39	31	24	32
강동구	30	48	9	42	58	34	18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0. 10: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계(3.9.)	누계	계(3.9.)	누계	
계	1,332	34,835	868	17,804	
국가지정	193	6,558	156	2,930	
지역거점	361	5,634	306	3,786	
국공립병원	168	2,185	154	1,618	
민간병원	610	20,458	252	9,470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3.10. 10:00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계(3.9.)	누계	계(3.9.)	누계	
계	227	1,351	187	1,123	
은평병원	29	247	29	237	3.3.개소
舊소방학교	44	284	32	164	3.3.개소
잠실주경기장	74	599	50	507	3.3.개소
이대서울병원*	80	221	76	215	3.5.개소

※ 이대서울병원은 주말에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음 (3.7.~3.8. 미운영)

* 향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주 단위 비교예정

-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에는 차량 1대에 1명만 탑승하여 진료 및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최근 한 DT에서 차량 1대에 3명의 가족이 탑승하여 진료를 받으려 한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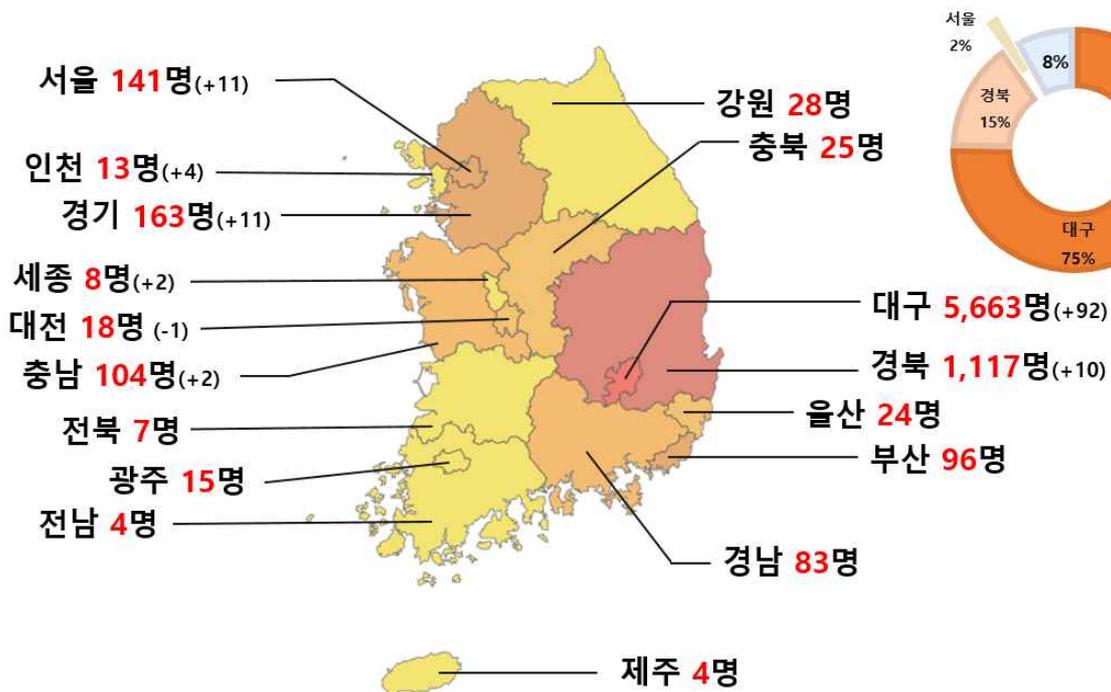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7,513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131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54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72%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80.2%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8%임(국내 집단발생 연관성 추이: 3.4. 65.6% → 3.7. 72.8% → **3.10. 80.2%**).
- * 전체 확진 사례 중 신천지 관련 집단발생은 4,710명(62.7%)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10.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9.(월) 0시 기준	196,618	7,382	166	7,165	51	189,236	17,458	171,778
3.10.(화) 0시 기준	210,144	7,513	247	7,212	54	202,631	18,452	184,179
증감	13,526 (6.4%)	131 (1.7%)	81 (32.8%)	47 (0.7%)	3 (5.6%)	13,395 (6.6%)	994 (5.4%)	12,401 (6.7%)

- 새롭게 확진된 환자 131명의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격리 중	7,212	110	86	5,533	10	12	17	23	8	140	21	22	103	5	3	1,043	73	3
격리 해제	247	31	10	92	3	3	1	1	0	22	6	3	1	2	1	60	10	1
사망	54	-	-	38	-	-	-	-	-	1	1	-	-	-	-	14	-	-
합계	7,513	141	96	5,663	13	15	18	24	8	163	28	25	104	7	4	1,117	83	4
증감	131	11	-	92	4	-	Δ1	-	2	11	-	-	2	-	-	10	-	-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0.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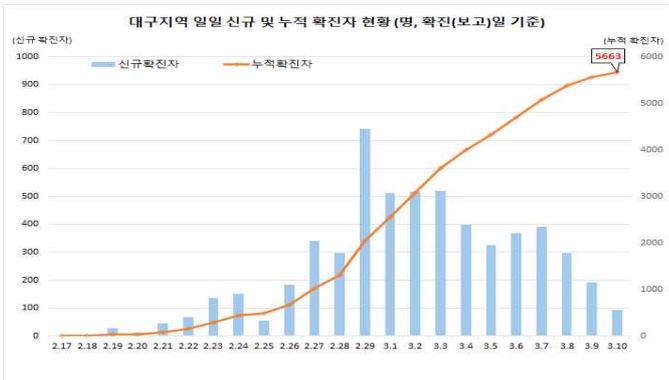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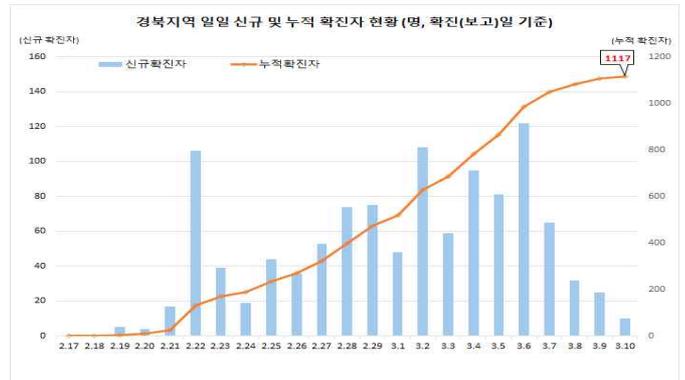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51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일별 신규 확진환자 수는 지난달 29일 900여명의 정점을 갱신한 이후 9일 만에 환자 수가 200명 이하로 감소함.

– 대구·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0. 00:00 기준)



대구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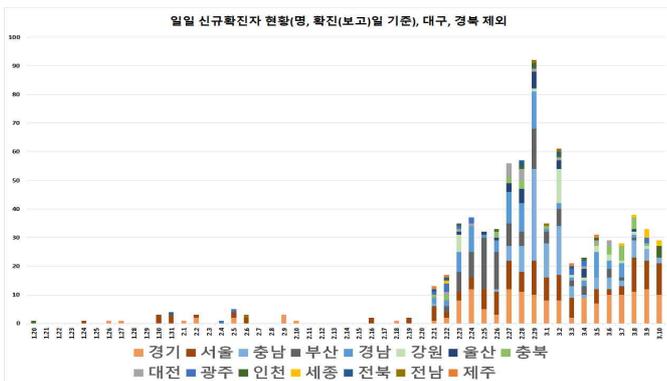


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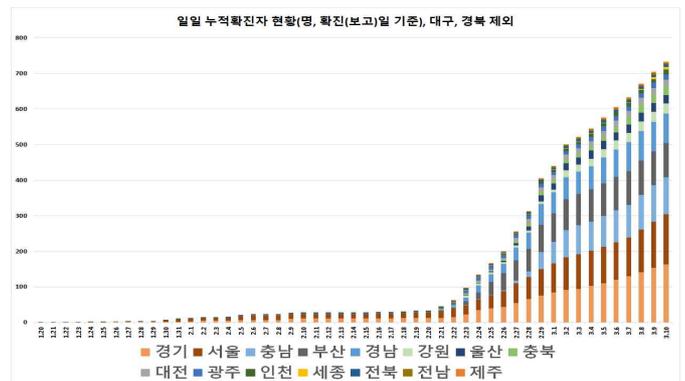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신천지 신도 대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증가 추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가 확인됨.

* 이에, 신천지 신도에 의한 지역사회 2-3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염이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방역 관리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누적 확진자 현황 (2020.3.10. 00:00 기준)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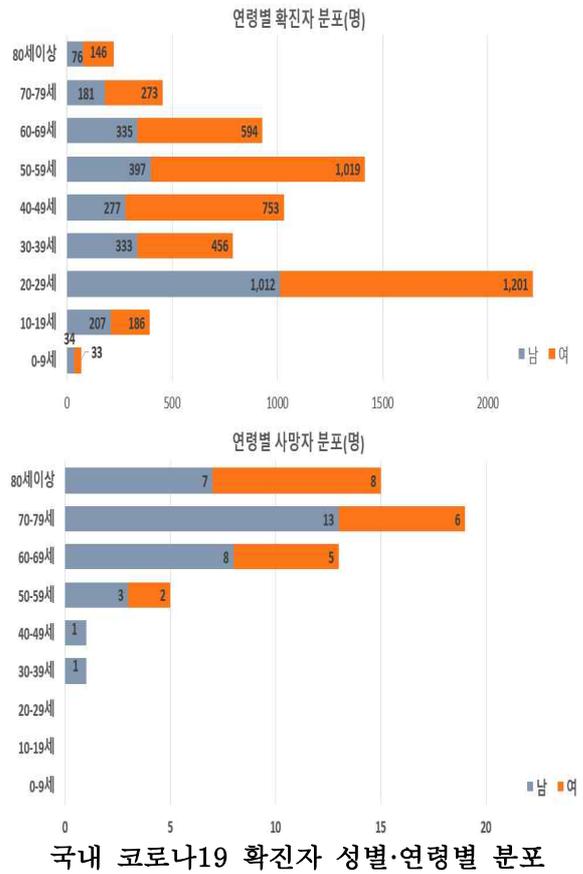
*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서울·충남·부산·경남 등 지역별 집단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 고위험군이 많이 있는 의료기관(기저질환 다수), 사회복지시설(고령자 다수), 종교시설 등 중심으로 집단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해당 시설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3.10.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7,513 (100.0)	54 (100.0)	0.7
성별	남성	2,852 (38.0)	33 (61.1)	1.2
	여성	4,661 (62.0)	21 (38.9)	0.5
연령	80세 이상	222 (3.0)	15 (27.8)	6.8
	70-79	454 (6.0)	19 (35.2)	4.2
	60-69	929 (12.4)	13 (24.1)	1.4
	50-59	1,416 (18.8)	5 (9.3)	0.4
	40-49	1,030 (13.7)	1 (1.9)	0.1
	30-39	789 (10.5)	1 (1.9)	0.1
	20-29	2,213 (29.5)	0 (0.0)	–
	10-19	393 (5.2)	0 (0.0)	–
	0-9	67 (0.9)	0 (0.0)	–



* 국내 확진자는 7,513명, 사망자는 5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0.7%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4,661명(62.0%)으로 남성 2,852명(38.0%)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33명(61.1%)으로 여성 21명(38.9%)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2,852명의 확진자 중 33명이 숨진 남성에서 1.2%로 여성 0.5%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2,213명(29.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416명(18.8%), 40대 1,030명(13.7%), 60대 929명(12.4%) 순으로 나타남.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47명(87.1%)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22명의 확진자 중 15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6.8%, 70대가 4.2%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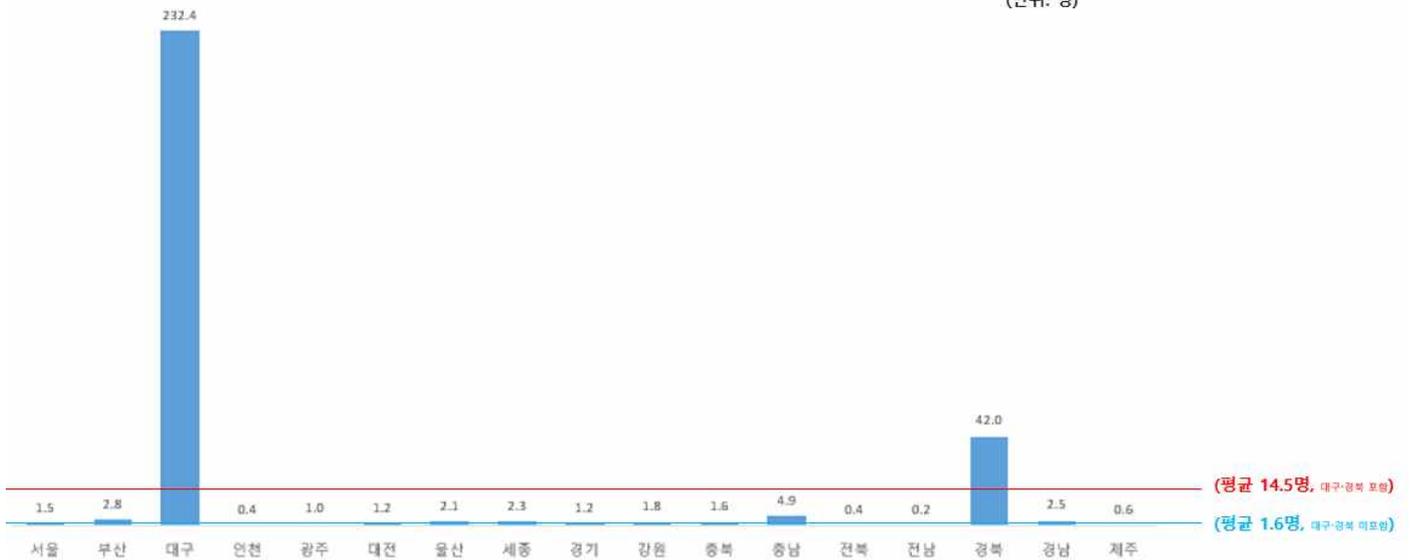
–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2020.3.10. 00:00 기준)

지역	확진자수	(%)	사망자	치명률	발병률	지역	확진자수	(%)	사망자	치명률	발병률
서울	141	(1.9)			1.5	경기	163	(2.1)	1	0.6	1.2
부산	96	(1.3)			2.8	강원	28	(0.4)	1	3.7	1.8
대구	5,663	(75.5)	38	6.7	232.4	충북	25	(0.3)			1.6
인천	13	(0.2)			0.4	충남	104	(1.4)			4.9
광주	15	(0.2)			1.0	전북	7	(0.1)			0.4
대전	18	(0.2)			1.2	전남	4	(0.0)			0.2
울산	24	(0.3)			2.1	경북	1,117	(14.9)	14	1.3	42.0
세종	8	(0.1)			2.3	경남	83	(1.1)			2.5
						제주	4	(0.0)			0.6
						총합계	7,513	(100.0)	54	0.7	14.5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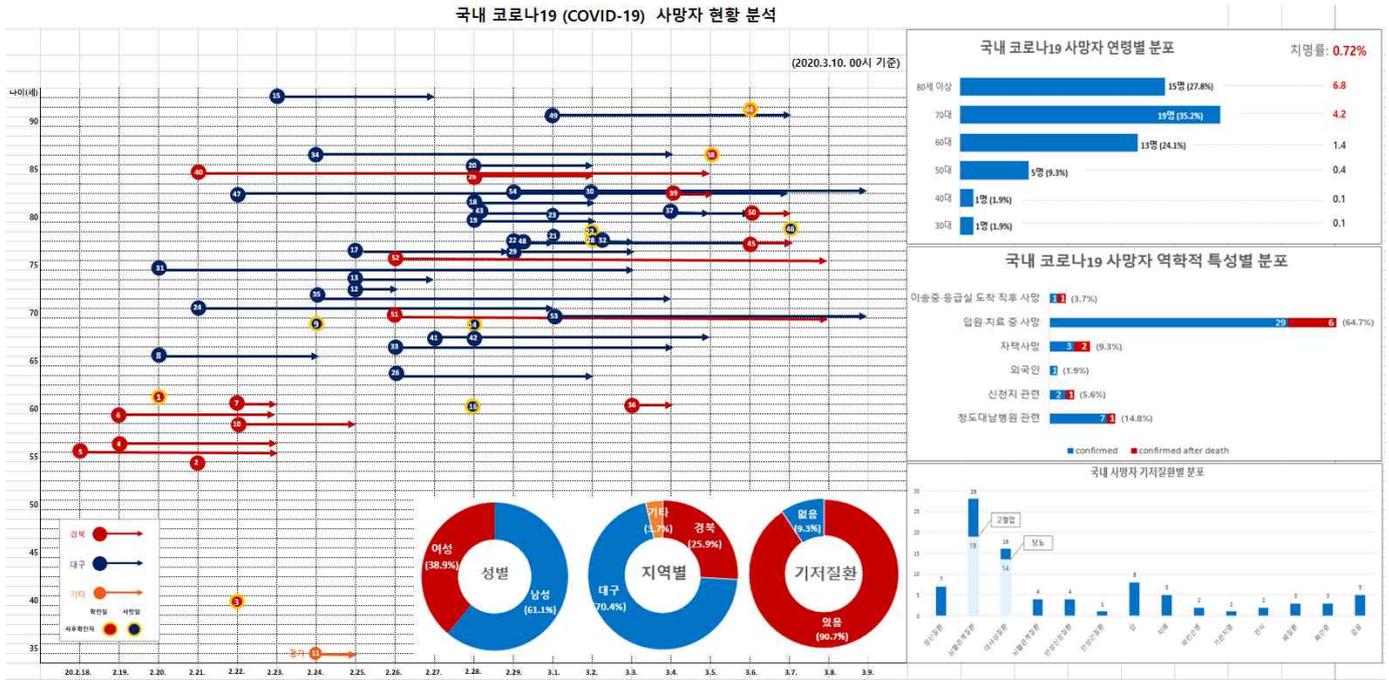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COVID-19) 인구 10만명당 발병율

(단위: 명)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2020.3.10. 00:00 기준)



국내 코로나19 (COVID-19) 사망자 현황 분석

- * 국내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87.1%**를 차지하며, 사망자들은 확진일로부터 **평균 4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 국내 사망자는 54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72%**로 보고되었으며, 3.4.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됨.

✓ **성별·지역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남성이 33명(61.1%)**으로 여성 21명(38.9%)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대구 38명(70.4%)**, 경북 14명(25.9%)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2명(3.7%)*은 각각 경기, 강원지역에서 발생함.
(* 2번째 사망자: 청도대남병원 확진 판정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 소관 정정(부산→경북)에 따른 수정)

✓ **연령별 분포 현황**

- * 연령대는 **70대에서 19명(35.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80세 이상 15명(27.8%), 60대 13명(24.1%), 50대 5명(9.3%), 40대 및 30대 각각 1명(1.9%)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22명의 확진자 중 15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6.8%**, 70대가 4.2%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기저질환별 분포 현황**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54명 중 **90.7%**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혈관계질환이 28명(51.9%), 그 중 고혈압이 19명(3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대사성질환 16명(29.6%), 암 8명(14.8%), 정신질환 7명(13.0%) 순으로 확인됨 (기저질환 중복 반영됨).
- * 3.4.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5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됨.

✓ **사망관련 역학적 특성**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역학적 관계로 보면 입원·치료 중 사망 관련 35명(64.7%), 청도대남병원 관련 8명(14.8%), 자택사망 5명(9.3%), 신천지 관련 3명(5.6%) 순으로 나타남.
(※ 이 중 사후확진을 받은 사망자 11명은 입원·치료 중 사망 6명, 자택사망 2명, 이송중·응급실 도착 직후 사망 및 신천지, 청도대남병원 관련 각 1명으로 확인됨)
- * 기저질환이 없는 대다수의 사망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나며, 고령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코로나19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2020.3.10.기준)

전국	신천지 교인	309,726명	
	조사대상자*	195,612명	
	전수조사(유선)	194,630명	99.5% 완료
	확진 판정	4,710명	62.7% (전국 확진자 대비 확진률)
대구	신천지 교인	10,458명	
	전수조사(유선)	10,458명	100% 완료
	진단검사	10,375명	99.2% 완료
	확진 판정	4,173명	40.2% (확진 양성률)
경북	신천지 교인**	6,549명	
	전수조사(유선)	6,541명	99.7% 완료 (예비신도 8인 제외)
	진단검사	6,227명	95.2% 완료
	확진 판정	497명	8.0% (확진 양성률)

* 조사대상자: 미성년자(16,680명), 교육생(65,127명), 주소 지불명(863명), 해외신도(31,894명) 제외 (단, 지자체별 교육생 포함된 지자체도 있음)

** 신천지 교인(6,549명): 일반신도(5,269명)+예비신도(1,280명)으로 보고됨.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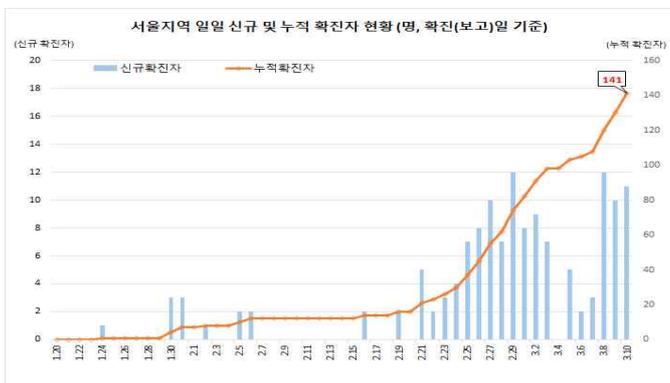
(출처) [대구광역시 정례브리핑\[25보\]_2020.3.10.\(화\) 10:30](#)

(출처) [20.3.10.\(화\)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대구·경북지역의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음

* 다만, 병원,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의 확산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함.

● 국내 지역별 코로나19 집단발생 주요 이슈



서울지역 일일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50명* 확진환자 발생(3.10. 0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 직원 46명(서울 19, 경기 14, 인천 13), 접촉자(가족) 4명 (3.10. 12: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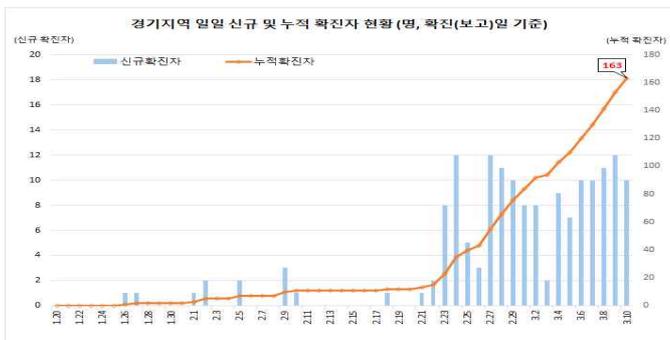
*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환자 46명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직원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사가 진행 중임.

- 콜센터 직원 207명 전원 자가 격리 중 124명에 대한 검사결과 19명 양성 판정, 83명 검사 진행중임.

-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7~9층)에서 근무 중인 직원에 포함 700여명 추가 발생 여부 및 신천지 관련성 등 확인 예정

* 그 외 성동구아파트(13명), 중구패션회사(7명), 구로구콜센터(19명), 동안 교회(4명) 등 관련

(출처) [질병관리본부 \(3.10. 정례브리핑\)](#), [뉴스1](#)



경기지역 일일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1명 확진자(신천지 관련) 발생(3.9. 기준)

- 신천지 과천본부에서 확보한 신도 명단에서 확인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중이었으나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무증상 확진자'임을 확인함.

- 확진자는 병원 지하 2층 통증센터 안내직원으로 외래진료를 즉시 중단, 폐쇄 조치 실시함.

- 센터 의료진 등 10여명,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36명 모두 자가 격리 및 검사 진행 중임.

* 그 외 분당제생병원(13명), 구로구 콜센터(14명), 수원생명샘교회(10명) 등 관련

(출처) [질병관리본부 \(3.10. 정례브리핑\)](#), [중앙일보](#)



충남지역 일일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충남 천안시 운동시설관련 확진자 95명 확진자 발생

- 충남 확진자 104명 가운데 95명이 천안시 운동시설(줌바댄스 강사)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됨(줌바댄스 강사, 수강생, 강사수강생의 가족·지인).

- 2.15. 천안에서 열린 줌바댄스 강사 워크숍을 중심으로 서울·대전·대구·세종·경기 등 타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진자를 중심으로 동선 및 접촉자 등 역학조사 진행 중임.

- 3.10. 기준 천안워크숍 → 줌바강사 → 수강생 → 접촉자 → 가족 등으로 확산되어 현재 5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짐.

(출처) [질병관리본부 \(3.10. 정례브리핑\)](#), [매일경제](#)

● 전 세계 발생 현황

- 4,368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14,423명(전일 대비 3.97%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4,029명(201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52%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103개에서 109개(*부르키나파소, 키프로스, 브루나이, 건지섬, 몽골, 파나마)로 증가됨.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0. 16:00)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중국	80,754	3,136	38	베트남	31	0	7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4	0
2	이탈리아	9,172	463	39	브라질	30	0	76	불가리아	4	0
3	한국	7,513	58	40	핀란드	30	0	77	몰디브	4	0
4	이란	7,161	237	41	팔레스타인	26	0	78	세네갈	4	0
5	프랑스	1,412	30	42	필리핀	24	1	79	방글라데시	3	0
6	스페인	1,231	30	43	아일랜드	21	0	80	콜롬비아	3	0
7	독일	1,224	2	44	알제리	20	0	81	룩셈부르크	3	0
8	미국	754	26	45	러시아	20	0	82	몰타	3	0
9	일본	530	9	46	인도네시아	19	0	83	북마케도니아	3	0
10	스위스	374	2	47	카타르	18	0	84	부르키나파소	2	0
11	영국	321	5	48	폴란드	17	0	85	카메룬	2	0
12	네덜란드	321	4	49	루마니아	17	0	86	키프로스	2	0
13	스웨덴	261	0	50	슬로베니아	16	0	87	모로코	2	0
14	벨기에	239	0	51	파키스탄	16	0	88	나이지리아	2	0
15	노르웨이	227	0	52	오만	16	0	89	캄보디아	2	0
16	싱가포르	160	0	53	에콰도르	15	0	90	아르메니아	1	0
17	오스트리아	131	0	54	조지아	15	0	91	부탄	1	0
18	말레이시아	117	0	55	사우디아라비아	15	0	92	브루나이	1	0
19	홍콩	115	3	56	칠레	13	0	93	건지섬	1	0
20	바레인	109	0	57	아르헨티나	12	1	94	요르단	1	0
21	호주	100	3	58	크로아티아	12	0	95	리히텐슈타인	1	0
22	덴마크	92	0	59	에스토니아	10	0	96	리투아니아	1	0
23	그리스	84	0	60	마카오	10	0	97	몰도바	1	0
24	캐나다	77	1	61	아제르바이잔	9	0	98	모나코	1	0
25	이라크	71	6	62	코스타리카	9	0	99	몽골	1	0
26	아이슬란드	65	0	63	헝가리	9	0	100	파나마	1	0
27	쿠웨이트	65	0	64	페루	9	0	101	파라과이	1	0
28	이집트	59	1	65	남아프리카공화국	7	0	102	세르비아	1	0
29	아랍에미리트	59	0	66	멕시코	7	0	103	토고	1	0
30	산마리노	51	2	67	알바니아	6	0	104	우크라이나	1	0
31	태국	50	1	68	벨라루스	6	0	105	바티칸시국	1	0
32	이스라엘	50	0	69	라트비아	6	0	106	안도라	1	0
33	대만	47	1	70	도미니카공화국	5	0	107	네팔	1	0
34	인도	47	0	71	뉴질랜드	5	0	108	스리랑카	1	0
35	포르투갈	39	0	72	슬로바키아	5	0	109	일본크루즈	696	7
36	체코	36	0	73	튀니지	5	0		합계	114,423	4,029
37	레바논	32	0	74	아프가니스탄	4	0			치명률	3.52%

전세계 코로나19 사망 추이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1	이라크	71	6	8.45	0.18
2	이탈리아	9,172	463	5.05	15.18
3	중국	80,754	3,136	3.88	5.80
4	미국	754	26	3.45	0.23
5	이란	7,161	237	3.31	8.75
6	호주	91	3	3.30	0.36
7	스페인	1,230	30	2.44	2.63
8	프랑스	1,412	30	2.12	2.11
9	일본	530	9	1.70	0.41
10	한국	7,513	58	0.77	14.55

* 이탈리아 확진자 수 9,172명(1,797명 추가), 사망자 수 463명(97명 추가)으로 치명률 5.05%(전일 4.96%)로 상승함. 발병률 15.18%(전일 12.20%)로 상승함.

* 한국 - 확진자가 많아 발병률은 높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음. 유전자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하여 무증상 혹은 경증 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을 파악중임. (미국과 독일은 한국의 도입 사례를 현지에 착안하여 운영중) 일본은 유전자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치사율이 높게 나오고 확진자는 적다고 분석함(의료 거버넌스 연구소가미 마사히로 이사장)

* 전세계 발생 치명률 3.48%로 전일(3.39%)보다 상승함.

* 중국 외 국가 치명률 2.39%(전일 1.96%), 발병률 0.45%(전일 0.39%)로 상승함.

- 치명률 상승지역

유럽 지역의 치명률 3.30%(전일 2.70%)

중동 지역의 치명률 3.01%(전일 2.41%)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10. 16: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병률
전 세계	109,577	3,809	3.48	1.41
중국	80,904	3,123	3.86	5.63
중국 외 국가	28,673	686	2.39	0.45

서태평양	8,237	62	0.75
유럽	12,210	403	3.30
동남아시아	108	1	0.93
중동	6,981	210	3.01
아메리카	372	12	3.23
아프리카	32	0	0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병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WHO, 팬데믹의 위협이 현실화 되어

팬데믹 위협이 매우 현실화되고 있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통제될 수 있는 첫 팬데믹이 될 것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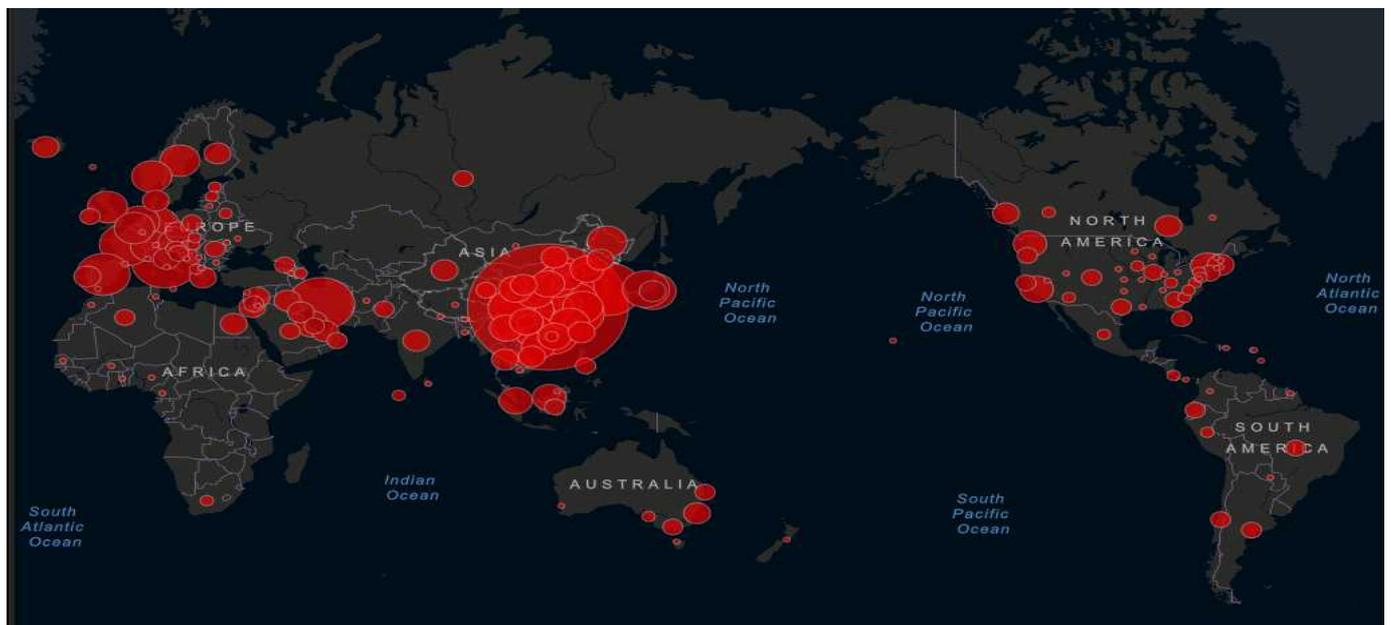
코로나19와 관련해 전 세계 국가를 4가지로 분류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나라 -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검진, 치료, 격리 및 접촉자 관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나라, 집단감염이 있는 나라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나라 - 상황에 따라 휴교,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출처)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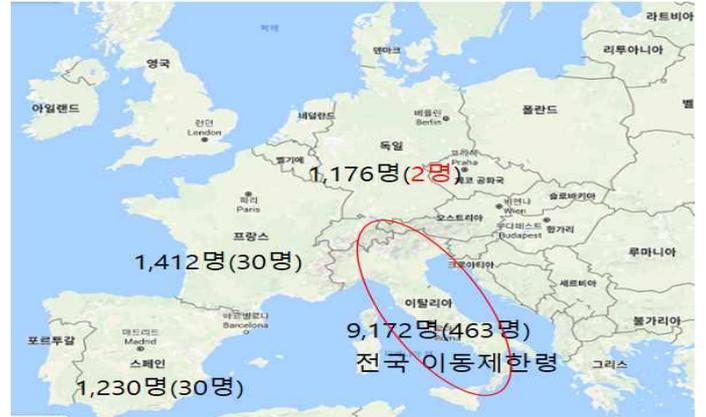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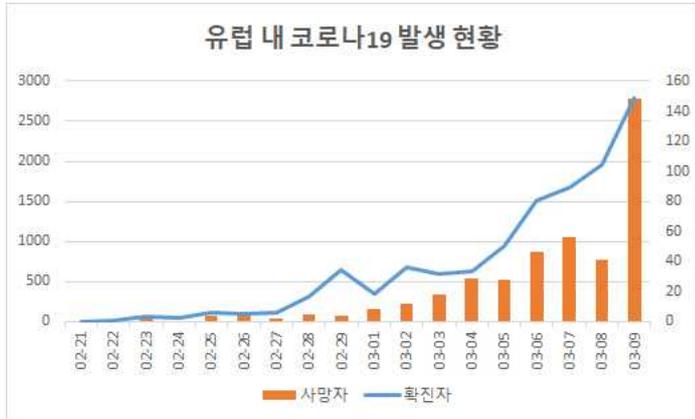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28,673명(전일 대비 3,946명 추가, 16.0%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686명(전일 대비 202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2.39%(전일 1.96%)확인됨.

✓ **유럽 전역 확산**



- **독일** : 확진자 1,176명, 첫 사망자 발생
- * 지난 1월 말 첫 확진자 발생 50여 일 후 첫 사망자 발생
- *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사망자 2명 발생



- **이탈리아** : 하루에 1,797명 확진자 발생
- * 확진자 9,172명(전일대비 1,797명 상승), 사망자 463명 발생함.
- * 10일부터 이탈리아 전역이 '보호구역'
- * 북부 14곳 레드존 지정 하루 만에 전국 확대
- * 6,000만명 국민이 거주지역에서도 이동제한
- 후베이성 우한을 전면 봉쇄하며 지역을 폐쇄한 전례는 있으나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



- **프랑스** :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발생
- * 1,412명(전일 대비 203명, 16.8% 상승)확진자, 사망자 30명 발생함.
- * 지난 7일 랑데르노 지역에서 기네스북 등재 위해 3,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스머프 축제 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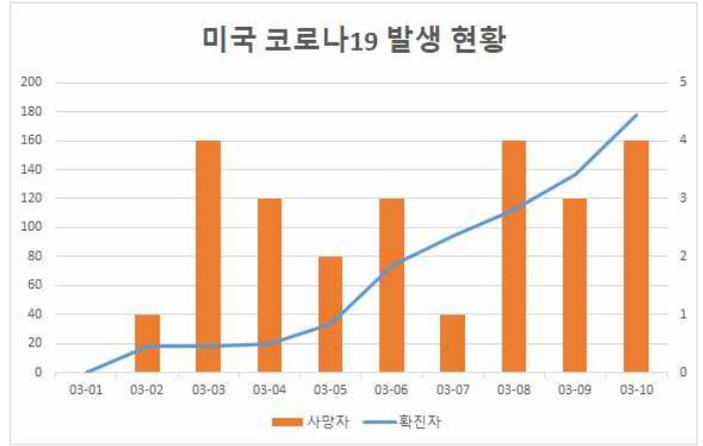
- **스페인** : 확진자 1,231명, 사망자 30명
- * 수도인 마드리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469명)와 사망자(16명) 발생, 노인돌봄센터에서 집단감염 발생하여 200여개의 노인돌봄센터를 한 달 동안 폐쇄함.
- * 바스크 지역(확진자 149명) - 23일까지 모든 학교 휴업 2주 전 인근 지역 장례식에 다녀온 후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거주자들을 집안에 머물도록 봉쇄명령 내림.

유럽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미국 - 36개 주에서 확진자 754명, 사망자 26명 발생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CDC](#)



미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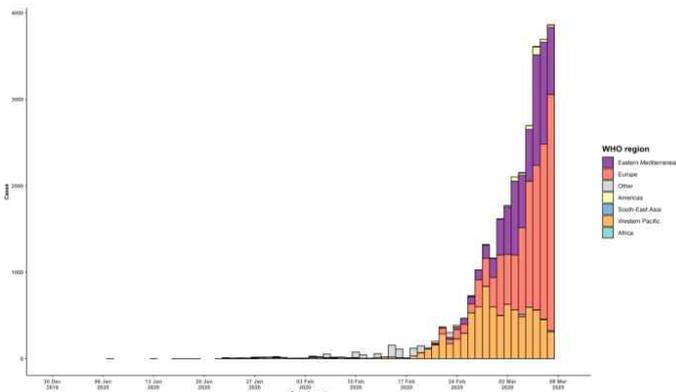
- * 집단감염이 확인된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 호는 해상 대기 뒤 샌프란시스코만의 오클랜드 항구에 정박함.
- * 21명(승객 2명, 승무원 19명) 확진 판정 받음.
- * 2,422명의 승객들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사람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하차 예정.
- * 한국인 승객 4명을 포함한 외국인 여행객은 본국에서 보낸 전세기로 귀국할 예정.
- * 승무원 1,116명은 크루즈선에 남아 격리 치료 받을 예정임.

✓ 인도·방글라데시 남아시아도 코로나19 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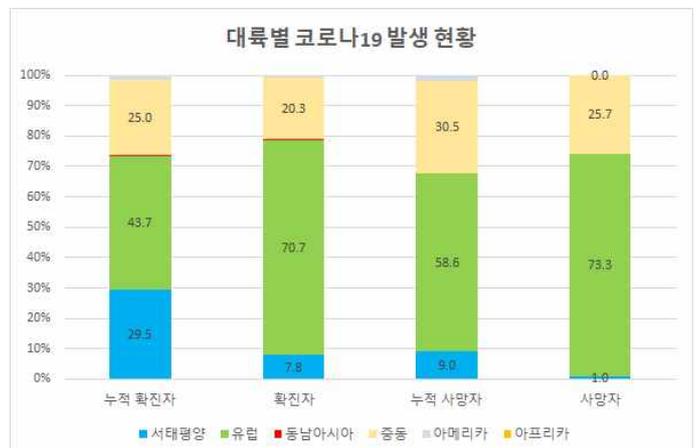


- * 의료시스템이 낙후된 국가가 많아 또 다른 대확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우려
- * **인도** - 지난 4일, 하루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뉴델리 내 초등학교 31일까지 휴교령 내림.
- * 인도 전역에 지역행사 취소 등 긴장상태
- * **방글라데시** - 첫 확진자 3명 발생함.
- * 2명은 **이탈리아 여행** 이력 있음.

남아시아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국가/지역	확진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된 일수
서태평양						
한국	7,382	248	51	1	*지역 전파	0
일본	488	33	7	1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50	12	0	0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93	0	0	0	*지역 전파	1
호주	77	3	3	0	*지역 전파	0
베트남	30	9	0	0	*지역 전파	0
필리핀	10	4	1	0	*지역 전파	0
뉴질랜드	5	0	0	0	*지역 전파	2
캄보디아	2	0	0	0	*지역 전파	1
유럽						
이탈리아	7,375	1,492	366	132	*지역 전파	0
프랑스	1,116	410	19	9	*지역 전파	0
독일	1,112	317	0	0	*지역 전파	0
스페인	589	159	10	5	*지역 전파	0
스위스	332	68	2	0	*지역 전파	0
영국	277	67	2	0	*지역 전파	0
네덜란드	265	77	3	2	*지역 전파	0
스웨덴	203	42	0	0	*지역 전파	0
벨기에	200	31	0	0	*지역 전파	0
노르웨이	169	22	0	0	*지역 전파	0
오스트리아	112	10	0	0	*지역 전파	0
그리스	73	7	0	0	*지역 전파	0
아이슬란드	55	10	0	0	*지역 전파	0
이스라엘	39	14	0	0	*지역 전파	0
산마리노	36	10	1	0	*지역 전파	0
덴마크	32	5	0	0	*지역 전파	0
체코	30	6	0	0	*지역 전파	0
핀란드	30	11	0	0	*지역 전파	0
포르투갈	21	9	0	0	*지역 전파	0
아일랜드	16	2	0	0	*지역 전파	0
슬로베니아	15	4	0	0	*지역 전파	0
루마니아	13	2	0	0	*지역 전파	0
조지아	11	1	0	0	해외 유입	0
크로아티아	11	0	0	0	*지역 전파	2
폴란드	10	5	0	0	해외 유입	0
에스토니아	9	0	0	0	해외 유입	2
아제르바이잔	9	0	0	0	해외 유입	2
헝가리	7	2	0	0	*지역 전파	0
러시아	6	0	0	0	해외 유입	2
벨라루스	5	0	0	0	*지역 전파	4
슬로바키아	4	2	0	0	*지역 전파	0
불가리아	3	2	0	0	*지역 전파	0
라트비아	3	2	0	0	해외 유입	0
몰타	3	0	0	0	해외 유입	1
북마케도니아	2	0	0	0	해외 유입	2
알바니아	2	2	0	0	해외 유입	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	0	0	0	*지역 전파	4
룩셈부르크	2	0	0	0	해외 유입	2
안도라	1	0	0	0	해외 유입	6
아르메니아	1	0	0	0	해외 유입	7
바티칸시국	1	0	0	0	조사중	3
리히텐슈타인	1	0	0	0	해외 유입	3
리투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10
모나코	1	0	0	0	조사중	8
몰도바	1	0	0	0	해외 유입	1
세르비아	1	0	0	0	조사중	3
우크라이나	1	0	0	0	해외 유입	5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영토국						
패로제도	2	1	0	0	해외유입	0
지브롤터	1	0	0	0	조사중	5
동남아시아						
태국	50	0	1	0	*지역 전파	1
인도	43	9	0	0	*지역 전파	0
인도네시아	6	2	0	0	*지역 전파	0
몰디브	4	2	0	0	*지역 전파	0
방글라데시	3	3	0	0	*지역 전파	0
부탄	1	0	0	0	해외 유입	3
네팔	1	0	0	0	해외 유입	45
스리랑카	1	0	0	0	해외 유입	42
중동						
이란	6,566	743	194	49	*지역 전파	0
바레인	79	23	0	0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64	2	0	0	해외 유입	0
이라크	60	6	6	2	*지역 전파	0
이집트	55	7	10	1	*지역 전파	0
아랍에미리트	45	0	0	0	*지역 전파	2
레바논	32	4	0	0	*지역 전파	0
오만	16	0	0	0	해외 유입	3
카타르	15	3	0	0	해외 유입	0
사우디아라비아	15	8	0	0	해외 유입	0
파키스탄	6	1	0	0	해외 유입	0
아프가니스탄	4	0	0	0	해외 유입	1
모로코	2	0	0	0	해외 유입	4
튀니지	2	1	0	0	해외 유입	0
요르단	1	0	0	0	해외 유입	6
영토국						
팔레스타인	19	3	0	0	*지역 전파	0
아메리카						
미국	213	0	11	0	*지역 전파	2
캐나다	62	5	0	0	*지역 전파	0
브라질	25	6	0	0	*지역 전파	0
에콰도르	15	1	0	0	*지역 전파	0
아르헨티나	12	3	1	0	해외 유입	0
칠레	10	5	0	0	*지역 전파	0
코스타리카	9	4	0	0	*지역 전파	0
멕시코	7	0	0	0	해외 유입	1
페루	6	0	0	0	*지역 전파	2
콜롬비아	1	0	0	0	해외 유입	2
도미니카공화국	1	0	0	0	해외 유입	7
파라과이	1	1	0	0	해외 유입	0
영토국						
프랑스령 기아나	5	0	0	0	해외 유입	1
마르티니크	2	0	0	0	해외 유입	1
세인트마틴섬	2	0	0	0	조사중	6
성 바르톨로메오	1	0	0	0	조사중	6
아프리카						
알제리	20	3	0	0	*지역 전파	0
세네갈	4	0	0	0	해외 유입	4
남아프리카공화국	3	1	0	0	해외 유입	0
카메룬	2	0	0	0	*지역 전파	2
나이지리아	2	1	0	0	해외 유입	0
토고	1	0	0	0	해외 유입	2
기타						
일본 크루즈	696	0	7	0	*지역 전파	1
총 합	28,673	3,948	686	202		

* 지역전파 58개국(전일 51개국)으로 증가하였음.(일본 크루즈 제외)

● 중국 발생 현황

- 중국 확진환자 발생 현황

- * 80,754명(전일 대비 19명 추가, 0.02%증가)으로 보고됨.
- * 사망자 3,119명 (전일 대비 17명 추가)으로 치명률 3.88%로 확인됨.
- *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안정기로 접어듦.
- * 시진핑 주석, 코로나19 진정되자 곧바로 우한행하여 사실상 이 사태의 종식 수순 돌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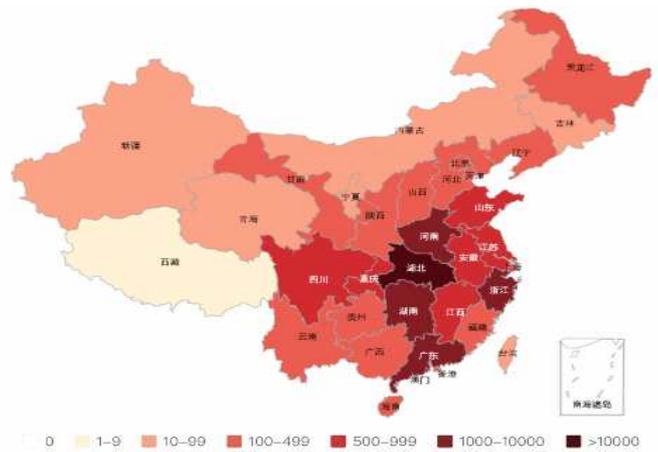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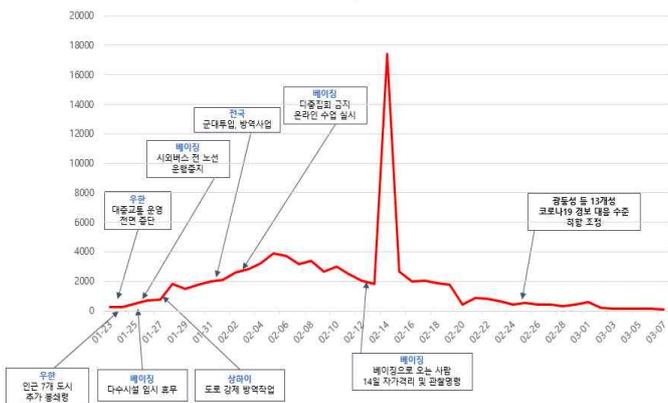
중국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10. 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확진자수	사망자수
3. 8.(일) 9시 기준	80,735	3,119
3. 9.(월) 9시 기준	80,754	3,136
증감	19	17

중국 지역 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3. 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지역	인구수 (10,000s)	일일현황			누적현황	
		확진 환자 수	의심 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 환자 수	사망자 수
후베이성	5,917	36	28	21	67,743	3,007
광둥성	11,346	0	0	1	1,352	8
허난성	9,605	0	0	0	1,272	22
저장성	5,737	0	0	0	1,215	1
후난성	6,899	0	0	0	1,018	4
베이징	2,154	0	8	0	428	8
상하이	2424	0	10	0	342	3
홍콩	745	5	0	1	114	3
대만	2359	0	0	0	45	1
마카오	66	0	0	0	10	0
기타	103,995	4	14	0	7,365	66
총 합	148,823	45	60	23	80,904	3,123

중국 코로나19(COVID-19) 확진 현황



중국 코로나19 확진 현황 (2020. 3. 9.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분포 (출처) <http://ncov.dxy.cn/>

- * 상하이 - 디즈니랜드는 단계적인 재개장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 9일 호텔과 쇼핑시설 등의 영업을 재개
디즈니랜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1월 25일 폐쇄함
- * 9일 칭하이(青海)성 - 일부 고등학교와 직업학교가 개학. 13일까지 순차적 개학
중학교는 16~20일 차례로 개학할 예정

● 서울시, 구로구 집단발생 즉각 방역...거주민 발열감시, 전 콜센터 긴급점검

- 서울시는 9일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 가족 등 22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함에 따라, 즉시 건물 전면 폐쇄, 신속한 역학조사·접촉자 관리 실시해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음
- 구로구 소재 빌딩(지하6층, 지상19층)의 11층에 위치한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10일 현재 22명(직원19, 가족3)임
 - * 콜센터 직원 207명 전원 자가격리 및 PCR 검사를 실시했으며, 207명 중 현재 124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양성 19명(85명은 결과 대기 중), 83명은 검사 진행 중임
- 시는 9일 해당 건물을 전면 폐쇄하는 긴급조치와 방역소독 실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접촉자 관리를 위해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구성, 구로구 보건소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임
 - * 콜센터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은 4개반 30명(총괄팀, 역학조사팀, 접촉자관리팀, 환자이송팀)으로, 서울시 19명(역학조사관6, 행정4, 역학조사요원 민사단 등 9), 구로구 11명 등임
 - * 1층~12층 영업시설 및 사무실 전체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13~19층은 거주주민 대상으로 자율적 자가격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 건물 출입제한 및 안내문을 부착하고, 건물 내 안내방송 실시해 혼선을 줄이며 방역조치 중임
- 서울시는 집단발생 즉각대응반을 통해 확산방지 → 감염확산 차단 →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강화 등 3단계 대응전략을 세우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시행할 예정임
 - * 자가격리 대상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실시(1일 2회)
- 10일부터 빌딩 앞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거주주민 출입시 발열체크를 진행하고, 유증상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료로 연계할 예정임
 - * 확진환자 이동 CCTV를 조사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CCTV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

● 서울시, 금천 마을버스(금천01) 운전자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비상대책 가동

- 서울시는 금천구 독산역에서 벽산아파트까지 운행하는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전자가 3.9(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힘
 - * 해당 운전자는 3.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운전자 부인의 직장동료가 3.8일 확진판정을 받음
- 서울시는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를 대응해 사전에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해당 노선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이루어질때까지 해당 노선 운전자 전원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를 실시함
- 아울러, 3.10(화) 하루동안 차고지를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시행, 해당 노선 전체차량에 대해서도 이날 방역소독을 시행해 비상수송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힘
 - * 금천01번 마을버스는 현재 18대가 운행중이며, 독산역부터 벽산아파트까지 하루 총 369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총 57명임
 - * 3.10(화) 하루동안 방역시행중인 기존차량을 대체해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수업체인 범일운수 시내버스 10대와 시내버스 운전자를 비상 투입해 평소 운행량의 60% 수준을 유지할 계획
 - * 서울시는 방역소독이 완료되고, 방역당국 역학조사가 끝나는대로 3.11(수)부터는 음성판정으로 격리 해제된 운전자가 복귀하면 60% 이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확진판정 받은 운전자가 운행한 차량에 탑승한 이용승객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자를 선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힘

● 서울시, 코로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정부 건의

-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의 조속한 전국적 시행을 정부에 10일(화) 건의함
 - * 2~3월 두 달 간 생활비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
- 서울시가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지원」은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못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가 대상임
 - * 이 제안이 시행되면 정부 추경을 보완하여 지금과 같은 재난에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틈새 지원이 가능함
 - * 이를 위해서는 ①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지원대책 ②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 * 정부 추경에 소비감소로 직접피해 입은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추가적으로 필요함
- 주요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 내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시간강사 등 근로자임
- 중위소득 기준 이하 전체 약 1,000만 가구(989만7천 가구) 중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약 800만 가구(796만 가구)가 해당됨
 - * 기존 복지제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자 138만 가구, 실업급여 신청자 18.7만 가구, 긴급복지 지원자 36만 가구
 - * (기존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138만 가구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등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 *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 796만 가구가 일시적인 매출이나 소득 감소의 상황을 겪을 때 생활비를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2~3월 생활비 지원을 위해 가구당 월 30만 원씩 총 60만 원(2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해 일괄 지급
 - * 4인 가구일 때 월 가구 소득이 4,749천원 이하인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신청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60만 원의 상품권 등이 지급됨
 - * 상품권 등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여 영세 소상공인에게 조속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행해야 함

기존 복지제도와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비교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선정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8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제도 혜택을 못 받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일시 지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건강생활유지비, 약제비, 진료비 등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가구 수선유지비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지원	○ 9개 항목 중복지원 가능 - 생계비 : 123만원(4인기준) - 의료비 : 300만원 내외 - 주거비 : 64만원(4인기준) - 복지시설이용 : 145만원(4인기준) - 교육비 : 초(22만), 고(43만) - 연료비 : 가구당 98천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 재난 긴급복지 지원금 가구당 총 60만원 - 월 30만원 2개월 분 일괄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지원 - 5월 말까지 사용 조건
지원횟수	항목별 상이 : 1회 ~12회	항목별 상이 : 1회 ~12회	1회
재지원	1년(회계연도 기준)	2년 경과 후	재지원 없음
지원실적	'19년 222천 가구(318천명)	'19년 46천 가구	-

● **서울시,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9구급대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이송한 환자는 총1,393명(3.6.기준)이며, 이 중에서 총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음

- * 지난달 2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 119상담 신고 건수와 이송 건수는 크게 증가함
- * 의심환자 상담 건수는 23일, 164건→ 24일, 438건으로 167.1% 증가했으며, 이송 건수도 23일, 49건→ 24일, 76건으로 55.1% 증가함

코로나19 관련 119 대응 현황(기간:2.22.~3.6.)

구 분	계	2월							3월						
		22	23	24	25	26	27	28	29	1	2	3	4	5	6
의심환자 상담신고(건)	6,232	282	164	438	509	631	569	360	616	502	498	368	549	335	411
119구급대 이송인원(명)	1,003	41	49	76	59	75	95	64	83	74	84	81	81	6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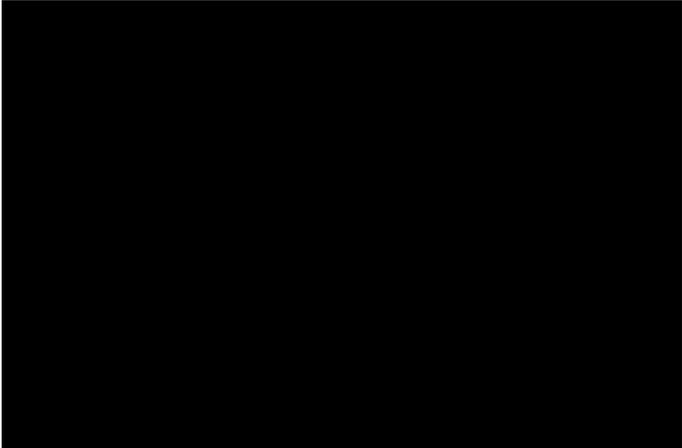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의심환자 이송 등으로 3월 9일 오전 7시 현재 22명의 소방공무원이 감염관찰 및 자가 격리 중임

- * 현재까지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없음

- 또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구시를 지원하기 위해 1차에 구급차 4대 8명, 2차 4대 8명의 구급대원을 파견하였으며, 현재까지 102명(3.9.기준)의 의심환자를 이송했음

- * 2차 근무자 교대 위해 3월 9일 오후 2시에 3차로 구급차 8대와 16명의 구급대원이 종로소방서에 집결하여 대구시로 출발함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전염병 환자 이송에 필요한 장비인 ‘음압형 환자 이송장비’ 28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1차로 6대를 인수하여 10일 이후부터 일선 소방서 전담 구급대에 보급할 예정임

- * 서울시 전역에서 총26개의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 구급대는 감염방지용 보호복, 덧신,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5종의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출동하고 있음
- * 또한 총43개소의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출동 후 철저한 소독으로 대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 격리시설인 감염관찰실은 목동119안전센터 1개소, 캠퍼가 9개소, 컨테이너1개소, 서울소방학교 생활관 등 총1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먼저 1339로 신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대가 이송해야 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차단할 수 있음

● **서울시, ‘약국 마스크 공적판매’ 일손·방역 지원해 시민불편 최소화**

- 서울시는 약국 마스크 5부제 공적판매와 관련해 인력, 방역을 동시에 함

- *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약국을 중심으로 최소 2,500개소 이상을 지원 예정
- * 서울시 약사회를 통해 수요조사(3.10.) 진행, 이르면 11일(수)부터 즉각 투입

- 약국 1개소당 3시간의 단시간 근로인력 1인이 투입되며, 총 14일 간 지원

- * 방역은 시민 접촉이 많은 출입구 손잡이와 대기공간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혹시 모를 감염우려를 해소

- 이번 인력·방역 지원은 서울시 약사회의 지원 건의를 서울시가 적극 수용해 이뤄진 조치

- * 매일 정해진 시간 없이 하루 1회 250개씩 배송되는 공적판매 마스크 판매를 위해 ①5개 묶음포장인 경우 2개씩 소분포장 준비 ②신분증 확인 ③구매사실 입력 ④결제까지, 필요한 업무소요가 많음

- 인력 지원으로 공적마스크 250개 판매 소요 시간 평균 150분에서 60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울시는 이번 인력·방역 지원에 특별교부금 16억 원(단기근로자 채용 11억 원, 방역 5억 원)을 긴급투입

- * 시는 앞서 5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53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금까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함
- * (1차) 방역물품구입 및 선별진료소 운영 : 34억 원, (2차) 보건소 비상대응인력 강화 : 14억 원, (3차)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및 중국인 유학생관리 : 66억 원, (4차) 동주민센터 방역물품 구입 및 비상근무직원 격려 : 17억 원, (5차) 중국인 유학생 관리 강화 2차 : 22억 원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본격화**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위하여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하였다고 10일 밝힘
 - * 프로브: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하여 분리해 낼 수 있는 탐지용 단백질
- 이번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을 통해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 세포(B세포)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게 됨
 - * 그간 완치자 혈액을 확보하여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정제하고 중화시험법을 확립하여 치료제 효능 평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
-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 백신, 진단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2차례 공모, 학계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연구로 치료제 개발 촉진
 - * 치료항체 개발, 백신후보물질 발굴, 임상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 약물 사용범위 확대 연구, 신속진단제 개발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
 - * 1차 긴급현안과제 공모 (4과제, 4.57억원), 2차 긴급현안과제 공모 (8과제, 10억원)
-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치료제 및 백신 연구용 동물모델 개발,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혈장치료제 개발 노력, 향후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도 추진할 예정임

●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 교육부는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 최소화, 학생 감염 방지하고 나아가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 선제적 차단 위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의 개학을 3월 23일로 연기한 바 있음
- 정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돌봄 공백 방지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는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하게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 * 학부모·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시·도 교육청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임

● **대구·경북 지역 방역 관리 상황**

- 3월 10일(화)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이며, 경북 지역의 확진자는 총 1,117명임
 - * (대구)확진자 현황 3월 4일 4,006명(전일 대비 +405명), 3월 5일 4,237명(+321), 3월 6일 4,694명(+367), 3월 7일 5,084명(+390), 3월 8일 5,381명(+297), 3월 9일 5,571명(+190), 3월 10일 5,663명(+92)으로 나타남
 - * (경북)확진자 현황 3월 4일 774명(+89), 3월 5일 861명(+87), 3월 6일 984명(+123), 3월 7일 1,049명(+65), 3월 8일 1,081명(+32), 3월 9일 1,107명(+26), 3월 10일 1,117명(+10)으로 집계됨(※각 날짜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감소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면서 지난 3일간 대기 환자수는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 신속한 입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치료병상 또한 확충하고 있음
 - * 우선, 16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3월 중 254병상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상확충을 요청할 계획임

● 생활치료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0일 오전 8시 기준,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에 총 2,071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해 있다고 밝힘
 - * ①대구1(중앙교육연수원) 129명, ②경북대구1(삼성인력개발원) 210명, ③경북대구2(농협교육원) 217명, ④경북대구3(서울대병원인재원) 97명, ⑤경북대구4(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68명, ⑥경북대구5(대구은행연수원) 45명, ⑦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308명, ⑧경북1(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6명, ⑨대구2(경북대학교 기숙사) 368명, ⑩충북대구1(건보공단 인재개발원) 110명, ⑪충북대구2(연금공단 청풍리조트) 155명, ⑫경북대구7(LG디스플레이 기숙사) 308명
- 전일 대비 센터에는 423명(전원 자가)이 추가 입소
 - *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자 등 총 4명이 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조치함
 - * 또한 경북대구2센터(농협교육원)에서 10명이 완치자로 판정되어 격리해제, 지금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총 46명이 완치되어 퇴소함
- 새로 개소한 충북대구1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는 일산병원이, 경북대구7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는 강원대학교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 의료진 파견되어 안정적 모니터링과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 * (기존 참여 병원)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순천향대병원, 인천한림병원 등
- 오늘 오후에는 경북대구8센터(경주 현대자동차연수원)가 추가 개소하여 총 280명의 환자가 새로 입소할 예정이며, 서울아산병원이 의료지원 전담병원으로 참여할 계획임
- 지정된 12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67명, 간호사 106명, 간호조무사 77명 등 총 282명의 의료인력 파견, 센터별 전담 협력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의료진을 파견하고 의료진 소속병원과 협진 및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요양병원 현장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 3월 9일부터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 협조를 받아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점검하여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종사자의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 3월 11일부터 12일까지는 대구·경북 지역 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 불명 폐렴환자 533명(179개소)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457명, 3. 5. 기준) 대상 전수조사 또한 실시하고 있음
- 조사는 시·군·구 보건소의 이동 검체채취팀이 방문하여 검체채취를 하여 수탁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3월 13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임

●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신도·교육생 중 특히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관리계획을 발표함
 - *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와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1,363명은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임
- 이번 조치는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3월 5일) 시 추가 확보된 정보(직업정보 등)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함
 - *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전체 종사자 21만여명(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1,137명과,
 - * 간병인 중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226명 포함, 1,363명을 선별해낸 것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코로나19 대응 업무 자원 군의관 후보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하여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을 배치하기로 함
 - * 국방부,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업무 수행 시 군의관 후보생의 군사 훈련기간을 6.5주(3.11.~4.24.) → 2주(4.10.~4.24.)로 단축하기로 결정
- 이번에 배치하는 군의관 후보생은 모두 전문의이며, 이 중에는 각 지역 의료기관의 충원 요청이 가장 많은 내과 전문의 60명(전체의 63%)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은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사·도에 배치되어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 총 10개 사·도에 배정(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지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과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되며, 지방자치단체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생활환경을 지원할 계획임
 - * 근무종료 후 9일(4.1.~4.9.) 동안 의료현장 근무 중 발생한 피로를 해소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여 동 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할 예정임

●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 정부는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임
- 지난 2주간(2.26~3.8)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이었으나, 특별입국시행일(3.9) 일본발 입국자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감소함
 - * 9일 하루 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였으며
 - *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 등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짐
 - *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여,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되게 됨
 - * 특별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제한된 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부서로 인계
-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여야 함
 - *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
 - * 지속적으로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 등의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임

● 국립중앙의료원, 대구지역에 중환자 의료인력 직접 지원

-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코로나19 병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을 직접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 3월 11일(수) 국립중앙의료원 출발하는 ‘긴급 의료지원팀’은 중환자 의료인력 부족으로 교대근무 일정도 지키기 어려운 대구지역 병원(대구 동산병원 등)에 최소 2주 이상 머물며, 지역 내에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 전국 확진환자의 75%를 치료하고 있는 대구지역은 특히 자가격리 환자 입원 및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의료진 업무 폭증, 중환자 병상 확충에 따른 추가부담까지 겹쳐 간호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호소해 왔음
- 국립중앙의료원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월 23일부터 ‘코로나19 전원지원상황실’을 가동해 병상부족으로 해당 지역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중증환자를 서울 등 타 지역 병원으로 전원을 지원해옴
 - * 3월 9일 현재, 총 87건 전원 결정,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송 43건
-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번 대구지역 의료인력 파견은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경험 있는 의료 인력의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국의 의료자원을 총동원하는 의미를 가짐

중국 상하이市 ‘코로나19’ 대응 위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문혜정 통신원(moon_hj@naver.com)

01. 배경

- 상하이市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춘절 연휴 연장, 2월 9일까지 기업체의 업무 개시 금지, 市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대해 2월 말까지 방학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또한 감염방지 관련 중점관리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
 - 아울러 市는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임대료감면, 금융지원 등에 대한 정책도 발표
- 나아가 市는 한층 더 강화된 11개 항목의 방역조치를 2월 12일 발표하고, 시민들 에게 적극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당부

02. 주요내용

첫째, 市로 들어오는 각종 진입로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

- 공항, 기차역, 상하이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와 수로(水路)를 엄격히 관리 및 통제
- 상하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
-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관찰을 실시
 - 기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관련 정보를 관할 지역에 신고해야 함
- 상하이에 주거지나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출발지로 돌아가거나 상하이로 들어오는 것을 자제하도록 강력 권고

둘째, 관할지역의 방역책임을 명확하게 함

- 각 구(区), 가도(街道), 진(镇)정부는 방역 업무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
- 주민위원회는 상하이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관리 및 통제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여 인원확인 및 감염 의심환자 조사 등을 실시

셋째,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 관리를 철저히 함

- 주민·촌민 위원회, 주택단지 관리업체는 주택단지(혹은 촌)의 출입구를 엄격하게 제한 및 통제
- 출입구에 검사를 설치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인력 배치를 강화
 -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드시 등록 및 체온측정을 실시
 - 이상 증상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이송
- 외부인과 외부 차량이 주택단지로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
- 택배나 음식배달 등은 무접촉 배달 방식을 취해야 함
 -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배달원이 물품이나 음식물을 가져다 놓으면 고객이 지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물품 등을 수령
- 관리업체가 없는 주택단지에서는 주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에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철저히 이행

넷째,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

-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일간 격리 및 관찰을 실시하고, 외부 출입을 금지
- 발열증세가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진찰 및 검사를 실시
- 격리관찰 등 방역조치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움
- 위생건강부서의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중 격리 관찰을 실시

다섯째, 건강정보 등록과 확인을 강화

- 상하이로 들어온 사람들이 등록한 건강정보를 면밀하게 확인
- 개인의 감염병력, 감염증 발생지역에서 여행한 이력, 환자 혹은 의심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숨기거나 격리 및 관찰을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고, 국가 및 상하이市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하이市 공공신용정보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등록

여섯째, 업계 방역규범을 철저히 실시

- 상하이 방문하거나 상하이로 복귀한 사람 가운데 교육, 보육, 의료, 가사 관리, 간호 및 노동집약형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격한 관리조치를 실시
- 격리관찰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 직장에서 격리가 가능하면 직장에서 격리하고, 주거지가 있으면 자택에서 격리
 - 주거지가 없는 사람은 각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집중격리시설에서 건강관찰을 실시. 다만, 이 경우에는 직장 혹은 개인이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물류, 택배, 대중교통, 택시 등의 업계 종사자는 직장에서 격리를 주관
- 자택이나 집중격리시설에서의 관찰기간은 상하이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임
- 직원 기숙사가 있는 직장에서는 방역주체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함

일곱째,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강화

- 출퇴근 첨두시간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최소화
- 역이나 정류장을 출입하는 인원을 분산하고 승차대기로 인한 인원의 밀집도를 낮추도록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집중되면 임시열차 등을 증설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승객의 밀집도를 낮춤

여덟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강화

-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시내버스, 통근버스, 페리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종사자는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대중교통수단의 청소 및 소독, 통풍 및 환기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
 - 지상 대중교통과 페리에서는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 환기
 - 지하철은 운행 중 환기시스템을 작동하고, 역에서는 24시간 환기시스템을 가동

아홉째, 공공장소의 방역을 철저히 시행

- 공공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근무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료위생기관, 상업시설,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에 협조해야 함
 - 각 시설 담당자는 시민이 협조를 거부하면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함
- 공공장소의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
 -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출입문의 손잡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곳을 매일 정기적으로 소독

열째, 건축공사현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

- 건축공사현장 입구에 건강관찰소를 설치해 건축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온측정을 실시
- 건축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 및 건강상황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매일 보고하는 긴급 보고 시스템을 운영
- 건축공사현장의 관리통제 및 안전관리를 강화
- 정기적으로 주요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

열한째, 러시아워를 피하도록 시차 통근제 권장

- 업종별, 지역별, 기업별 등으로 시차 통근제를 실시하도록 권장
- 탄력근무와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장려
- 경찰 및 교통관리부서는 시민들의 자가운전을 통한 외출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

http://www.legaldaily.com.cn/government/content/2020-02/11/content_8114626.htm

<http://www.shanghai.gov.cn/nw2/nw2314/nw2315/nw4411/u21aw1424187.html?phlnohdjmglngdbi>

인거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8304>

코로나19에 각자도생 대신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를

김창엽

○ 코로나19 대응 현황 진단 - 각자 도생의 노력에 의존하는 현실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움. 때문에 소극적 방어를 위해 마스크를 구매하게 되는 것
-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노력을 통해 개인들은 안심하고 공동체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하는 효과를 얻게 됨. 이러한 사회적 결과는 개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
- 정부의 마스크 조치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확진자의 동선 추적 및 공개하여 개인에게 피하라고 한 조치도 개인에게 인지노동을 부담시키는 것
- 개학 연기 및 공공기관 폐쇄 조치도 개인에게 스스로를 가정에서 돌보도록 부담지우는 것. 사회적 돌봄 취약가정(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은 가정 내에서 정작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제점1 - 공동재(common goods)의 파괴, 죄수의 딜레마

-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적, 집단적 능력은 '공동재'(common goods)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공동재 특성상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동의 협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존하였을 때 모두의 불이익이 발생함 (죄수의 딜레마)
- 코로나 19 대응조치를 개인들의 능력과 노력에 의존하였을 때 우리 사회 내 취약한 계층들은 '사회적 삶의 파탄, 죽음'의 압박에 내몰리게 됨. 이는 다시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 증가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임
- 정부의 기존 사회적 안전망들(건강보험,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돌봄 등)의 현 수준은 위 죄수의 딜레마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와 규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함
- 따라서 각자도생에 기본 방향이 맞추어져 있는 한 정부의 정책들은 개개인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기에 불충분하며 각자도생의 제도화가 공고화될 수 있음

○ 문제점2 - 감염병 발생의 불평등 심화 초래

- 공동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집단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경우 전염의 사회적 불평등성은 심화될 것
- 청도대남병원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사회 열악한 정신장애, 취약한 의료, 돌봄, 차별 배제 집단에 바이러스 전염이 이루어졌을 경우 차별과 낙인이 심화되기도 함
- 비단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에서의 동양인 혐오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 나옴i 클라인의 '재난 자본주의'에서는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무질서 및 혼란이 오히려 사회적 강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흐름을 만들어 내기도 함

○ 해결책 - 위기를 기회로, 새로운 사회적계약의 달성

- 미래사회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예측됨. 때문에, 우리 사회의 체제 안정성을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사회 공동재 투자(common goods)는 필연적인 결과임.
- 신종 인플루엔자는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선제적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이 아니며 인간과 생태계 상호작용에 따라 돌발적으로 생겨나는 '생태학적 감염병'임
- 현 사회 내 산발적으로 각자도생하고 있는 병원,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기관, 민간기관들 사이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처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때임. 이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
- 이러한 공공성 강화 토대위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법과 행정, 관리와 리더십 수준을 강화하여,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의 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이러한 정책적 환경 조성을 '공공보건의료 국가책임제'란 이름으로 제안 함

○ 결론 - 정치 공공성의 강화로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내재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공공성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신종 감염병 대처를 위해서는 재난 기본소득의 예와 마찬가지로 임금과 소득, 보육, 돌봄, 교통 등 경제생활 전반에서 해결책이 필요함. 하지만 기존의 시장중심의 가치관만으로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움
- 개인과 지역 및 국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강화와 심화라는 기초과제 귀결됨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1명...국내 총 7513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9일) 0시에 비해 131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 100명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131명 가운데 102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대구 92명, 경북 10명이다. 그 외 지역 신규 확진자는 서울 11명, 인천 4명, 세종 2명, 경기 11명, 충남 2명 등이다. 대전은 기존 확진자 1명의 소관지역이 경기로 이관돼 1명이 줄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54명이다.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 166명에서 81명 추가돼 총 247명으로 늘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0500045&wlog_tag3=naver)

● “구로 콜센터 확진자 64명” 해당 층 전 직원 진단 검사

수도권 내 최대 규모 집단감염지가 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이라고 서울시가 밝혔다. 서울시의 확진자 집계는 오후 2시 기준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정오 기준으로 밝힌 확진자 수(50명)보다 14명 더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2시 열린 ‘코로나19 집단감염 실무자 소통 회의’에서 “구로 콜센터 확진자는 64명”이라고 밝혔다. 64명 가운데 서울 거주자는 40명, 인천 거주자는 13명, 경기 거주자는 11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콜센터는 건물 11층에 있고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07명이다. 방역대책본부는 207명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는 11층 외에 7층~9층에도 콜센터가 있으며 4개층 전체 직원은 600~700명 규모다.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해당 콜센터 직원들은 업무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 게다가 콜센터는 좁은 공간에 모여 앉아 전화를 받기 때문에 ‘거리두기’ 역시 쉽지 않은 구조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01615001&code=940601)

● 한국군·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확진자 1명씩 증가

국방부는 1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명이라고 밝혔다. 대구에 근무하는 공군 간부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별 누적 확진자는 육군 20명, 해군 1명, 해병 2명, 공군 13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완치됐다. 주한미군 관련자 가운데 확진자는 9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주한미군 의료진은 이 직원의 동선을 역학조사 중이다.

출처 :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01034001&code=910302)

● **신촌세브란스 재활병동, 코로나19로 시설 일부 폐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재활병동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폐쇄 조치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10일 병동 입구에 '재활병원 3층 운영 일시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재활병원 3층이 포함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선제적으로 치료실 운영을 일시 중단하오니 양해 바랍니다"고 폐쇄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이날 "10일 새벽 4시께 확진자 부모로부터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아 개원과 동시에 재활병동 내 3층 어린이 재활치료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관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측은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외래 치료를 받고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활병동 내 어린이 재활치료실을 포함한 재활병동 일부를 폐쇄했다. 역학 조사결과는 10일 저녁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폐쇄된 3층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재활치료실은 정상운영 중이다.



출처 :더팩트(<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84923.htm>)

● **“10명 중 7.5명, 코로나19로 외출 자제”**

우리 국민 10명 중 7~8명은 미세먼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환경적 사유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발표한 3월 소비자행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가 최근의 환경적 상황을 이유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80%는 외부활동 대신 실내에서 주로 TV나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6%가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특히 20대와 50대 여성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TV(57%)와 인터넷 포탈 기사(32%)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는 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사는 전국 만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출처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1002109931032006&ref=naver)

● **韓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 방역모델 만들고 있나..전문가들 "그렇다"**

지난 8일 정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방식의 검체 채취 ▲1일 1만7000건에 달하는 검사 건수 ▲위성항법장치(GPS) 정보를 활용한 역학조사 등을 실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10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대목이 병상 배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기하는 인원이 일평균 1800명에 달하는 점은 정부도 인정한 바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 숨지는 환자가 나오기도 했다.

출처 :뉴스시스(<https://news.v.daum.net/v/20200310050202887>)

●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4번째 지출...7259억원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7259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3500억원), 정부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이들에게 생활지원비(682억원) 및 유급휴가비(997억원) 등이다. 이 외에 격리·치료비에 1296억원을 투입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치료병상도 150병상을 신설한다.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 수당, 각종 장비구매비,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 등에 쓴다. 보건소·검역소 등에 감염 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방역 비용 382억원, 검역·검사비용 332억원, 방역 대응 콜센터 인력 증원(21억원) 등에 예비비가 투입된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888.html)

● **국회, 코로나19 추경 상임위 심사 일제히 시작**

국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 상정과 심사를 시작한다.



추경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를 빙자해 총선을 앞둔 선심성 추경을 해서는 곤란하다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09169100001>)

● 박원순 "상품권 60만원씩"...정부에 '긴급생활비지원'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매출 급감, 실직, 무급휴직 등을 겪으며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 추경의 지원 대상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전체 소요 예산은 4조8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076800004?input=1195m>)

● 박원순 서울시장 "마스크 인력·약국 방역 지원" 약속

박 시장은 서울시약사회 회원 약사들에 “요즘 서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냐”며 “공적 마스크 공급에 함께해주신 약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예방에 힘쓰는 약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밝히기도 했다. 그중 하나는 현재 약국의 공적 마스크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와 병행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어 수많은 시민을 접하는 약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국 방역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팜(<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2646&REFERER=NP>)

● 코로나19 확진자, 병원·생활치료센터·자택에서 총선 투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자택에 격리 중인 유권자가 4·15 총선에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인 '거소투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소투표 신고 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 생활치료 센터에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확인하게 된다.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는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038100001?input=1195m>)

● 유전자 증폭 검사 거쳐 6시간 내 '감염 판정'...“세계 최고”라는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현장 가보니

현재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18곳과 민간 검사기관 95곳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1만5000건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원리는 간단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전물질(핵산)을 분리하고, 이를 많은 수로 증폭시켜서 기계가 감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성문우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이런 속도와 규모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겪으면서 드러난 취약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해 놓은 덕이 컸다. 일본은 감염병분석센터를 만들었고, 진단검사학회는 해외 연구소의 검사기법들을 수시로 살펴면서 센터와 정보를 공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 정도 걸리는 검사법 승인을 단 며칠로 단축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제도를 만들었다. 송상훈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국내에는 약 1200명의 진단검사 전문의 인력풀이 정립돼 있다”면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술은) 일찌감치 진단검사 분야를 의학의 한 분야로 독립시켜 기술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100600045)

[사설]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도 생각해 볼만하다

코로나19로 고통이 가장 큰 계층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한다. 소득이 격감하고 해고 위협에 처해 있는 돌봄·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른다. 조만간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부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집중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지만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 많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재정투입 부담이 큰 반면 지원규모는 적은 단점이 있다. 1인당 50만원을 1000만명에게 지원해도 5조원이 든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이 확대 시행을 주문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정부 예비비로 신청 후 48시간 내에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의 생활비를 6개월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복지시설이용 등도 지원한다. 요건에 맞지 않게 수급한 경우에는 돌려주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로 효율성이 높으면서 무엇보다 기존에 시행해 온 제도라 저항이 작다.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문제이기는 하다. 가족 중 주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실직·폐업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 데다 소득·재산 등 지급 기준도 엄격하다. 저축이 500만원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고쳐 시행한다면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책이 정작 피해계층은 비껴가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국회가 코로나19 추경을 심사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를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할 적기이다.

출처 : 경향신문(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3092055015)

연구동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코로나19 감염후 평균 5일만에 증상... '14일 격리'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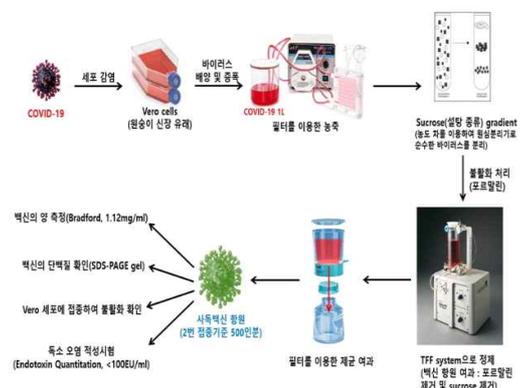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평균 5.1일 뒤에 증세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극소수를 제외한 환자가 노출 후 12일 내에 증세를 나타낸다는 이번 분석으로 현행 14일 격리가 합당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무증상 기간'은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비슷하지만 감기를 일으키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에서 통상 나타나는 3일보다는 길다. 이번 연구결과는 올해 2월 24일 전에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서 관측된 감염사례 181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04060009?input=1195m>)

● 충남대 연구팀 "코로나19 백신 항원 생산"...검증 계획

충남대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팀이 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항원을 만들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안전성·면역성·방어효능 확인차 동물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증에는 4~6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PYH20200310076100063?input=119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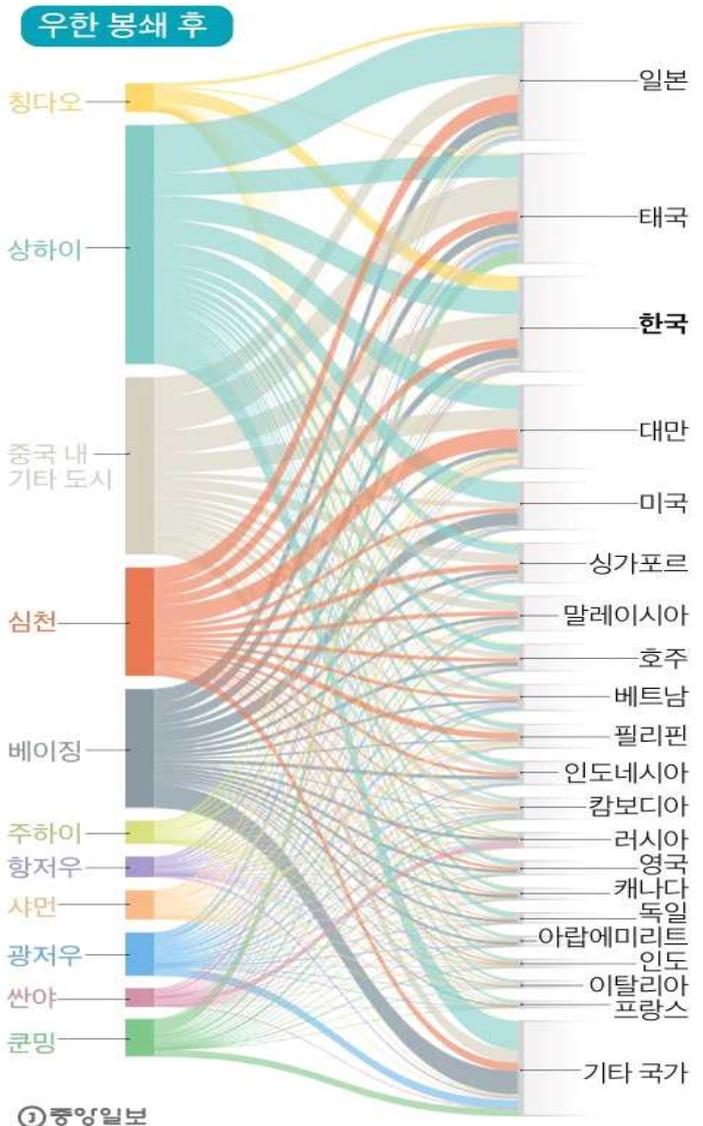
● “코로나19, 우한 봉쇄 전 이미 중국 전역에 번져 있었다”

마테오 차이나치 미국 노스이스턴대 생물사회기술시스템모델링연구소 연구팀 등은 지난 6일(현지시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여행 제한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들은 전 세계 200여 국가의 인구 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전파를 예측하는 ‘글로벌 감염 확산 이동 모델’(Global Epidemic and Mobility)을 활용했다. 그 결과 1월 23일 시행된 우한 봉쇄 조치는 전염병 확산을 3~5일 정도 지연시켰을 뿐, 확산 자체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중국 도시들에는 우한을 봉쇄하기 전 이미 감염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봉쇄 자체가 전체 환자 수를 줄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에 3000여 개의 허브 공항이 있고, 쇼핑몰이나 학교처럼 지역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퍼전파자의 위협은 늘 있다. 세계 경제에 연쇄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바이러스가 여행 관련 산업뿐 아니라 세계적인 제조업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는 회사채 시장에서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을 촉발시켜 세계 금융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중앙일보(<https://news.v.daum.net/v/20200310000304749>)

우한 봉쇄 전후의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 변화



● 코로나19 대확산에 이탈리아 정부 “전국에 이동제한령” 초강수

이탈리아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거듭된 조치에도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자 이탈리아 정부가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초강수를 뒀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9일 오후 6시 기준 코로나19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9천 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비 1천797명(24.3%) 증가한 것이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 대비 97명(26.5%) 증가한 463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전국 이동제한령'이라는 카드를 빼 들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10일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이동제한령이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이 모든 문화·공공시설도 폐쇄된다. 전국 휴교령도 자연스럽게 내달 3일까지로 연장됐다.

출처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0006851109>)



● '비상사태' 뉴욕주 코로나19 확진 142명...재판까지 영향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 뉴욕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주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4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날 105명에서 37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의 추세로 볼 때 이날 확진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뉴욕 연방법원은 2주내 한국이나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사람의 법정 출입 및 출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법정을 포함해 뉴욕주 화이트플레인스와 포킵시에 있는 법원들에 적용된다. 이들 법정에 대한 출입금지는 2주내에 이들 5개국에 다녀온 사람과 접촉을 했거나 같이 거주하는 사람,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출처 :연합뉴스(<https://m.yna.co.kr/view/AKR20200310005100072>)

● WHO "코로나19 팬데믹 위협 매우 현실화"

세계보건기구(WHO)는 9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단력 있고 빠른 대처로 코로나19를 늦추고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서 보고된 8만 명의 확진자 가운데 70% 이상이 회복해 퇴원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규정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며 통상 팬데믹은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를 못 할 때를 일컫는다고 "싱가포르나 중국 등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나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전염이 확산한 국가에서는 상황에 따라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며, 이 같은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싱가포르와 한국 등이 보여줬다고 제시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10002652088?input=1195m>)

● 중국 코로나19 신규 확진 20명 밑으로...확연한 진정세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9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9명이고 사망자는 17명이었다고 10일 밝혔다.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7명씩이다. 이 가운데 우한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17명과 16명이다. 후베이성에서 우한을 제외하고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9일까지 중국 내 누적 확진자는 8만 754명, 사망자는 3136명이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10500044&wlog_tag3=naver)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보호 방안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연수원, 호텔 등 시설격리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5기저질환 1개 이상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감염병 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이 떨어진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
-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예시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증(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증(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호흡 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RT, ECMO 필요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 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

-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 (지자체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10.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3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6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7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8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9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2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3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4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5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6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7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8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19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0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4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5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6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7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28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29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30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1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2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3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4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35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36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37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38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39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4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4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42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4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44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45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46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47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48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49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50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총합	22개 자치구	50개소	외래 27개소, 외래진료 및 입원 23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30)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목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온종합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2)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부평구), 나누리병원(미추홀구)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길안과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3)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광주(5)	KS병원,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첨단종합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나누리수원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인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예송병원, 오산한국병원, 온누리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윌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춘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6)	강릉고려병원, 강원대학교병원*,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홍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2)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서울대정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전북(10)	고창종합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호성전주병원
전남(12)	고흥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전남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4)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8)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자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지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란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함양성심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시도 251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10)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현황 (<https://www.kha.or.kr/>).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2	종로구	서울직접자병원	02-2002-8650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8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9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0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1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9)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